

# 인천이 스마트하게 소통합니다



인천이 전국 최초로 지난 2월부터 확대간부회의를  
스마트폰으로 생중계했습니다  
이제 인터넷방송 · 신문, 시청소식지 <굿모닝인천> 등을  
'인천시미디어' 앱으로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3월 중 앱 운영)

스마트폰으로 스마트하게 소통하는 인천  
이제, 인천은 내 손에서 화통하게 '소통'합니다.

- 매월 확대간부회의의 스마트폰 생중계 시청방법
  - 주소창 도메인 주소 입력 : [mlive.incheon.go.kr](http://mlive.incheon.go.kr)
  - QR코드 스캔



# 굿모닝 인천

Good Morning INCHEON

2011 / 3



발행처	인천광역시
발행일	2011년 3월 1일
발행인	인천광역시장
편집인	대변인 윤관석
편집장	유동현(뉴미디어팀장) twitter.com/ihappyou
취재	편집위원 이용남 twitter.com/yona1488 편집위원 정경숙 twitter.com/bluelou7 편집위원 김윤경 twitter.com/ice3333
사진	김보성 · 홍승훈 · 정정호(자유사진가) 심영보 · 하장원(시 대변인실)
행정간행물 등록번호	62800000-84900-42-81
편집디자인	코인뱅크 T. 032-831-2336
인쇄	브레인포스 T. 032-423-1988

굿모닝인천은 goodmorning.incheon.go.kr를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본지에 실린 글과 사진은 허락을 받은 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본지에 게재된 내용은 필자 개인의 견해이며,  
인천광역시의 입장과는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굿모닝인천은 무료로 배포됩니다.

구독문의 032-440-8306

(해외에 있는 친지에게도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 Cover Story

### 인천대교(Incheon Bridge)

인천국제공항과 송도국제도시를 연결하는 세계 5대 해상 사장교로 총 길이 18.4km, 주탑 높이 238.5m를 자랑한다. 바다와 땅, 하늘... 어디에서 보아도 시선을 사로잡을 만큼 아름답다. '경이로운 세계 10대건설'이라는 수식어처럼, '대한민국의 심장, 경제수도 인천'을 대표하는 건축물 중 하나다.



06



18



26



30

04 COMMUNICATION 소통과 화합

06 그린인천 인천 동맥 녹지축 산행

12 도전 인천유나이티드FC

16 당신을 지원합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18 포커스 시 홍보미디어 '스마트'하게 본다

20 2014 인천AG 캄보디아

24 책 읽는 인천 리더가 세상을 리드한다

26 Incheoner 북싱챔피언 트레이너 김광호 관장

30 Old But New 도원동

34 Culture News 문화뉴스

35 Calendar 이달의 공연 · 전시

36 사람과 사람 김순자 · 허민

40 Civic News 시정뉴스

44 Council News 의정뉴스

48 별난 물건, 별난 역사 성냥

50 외국인 칼럼 로비 카라

51 건강백세 깊은 잠, 편안한 잠

52 Infobox 생활정보

56 Spot the Difference 틀린그림 찾기

57 Reader's Photo 김치찰각

58 모닝커피 한잔 김광

06

그린인천 | 인천 동맥 녹지축 산행

## 봄빛 흠뻑 물든 녹빛 따라 걷다

인천에는 계양산을 시작으로 도시 곳곳을 지나 봉재산까지 이어지는 동맥 녹지축이 있다. 생명력 가득한 대지의 생기가 이 동맥을 타고 흐른다. 햇살이 이끄는 데로 바람이 손짓하는 데로, 그 길 따라 봄을 만난다.

26

Incheoner | 북싱챔피언 트레이너 김광호 관장

## '록키의 꿈' 싹 틔운 금강권투장

시간에 녹슬어 버린 간편처럼 오랜 세월 땅으로 식은 체육관. 출렁기가 통통 튀는 발과 발을 넣고, 사각의 링에선 복서들의 붉은 글러브가 바람을 가르다.

30

Old But New | 도원동

## 그 언덕엔... 복숭아 꽃이 피지 않는다

산 하나가 도원동을 품고 있다. 그 산을 흔히 모모산이라고 불렀다. '모모'는 복숭아의 일본말이다. 도원(桃源)이란 이름 중 복숭아 도(桃)자 때문에 이렇게 불리었다.

## 소통과 화합 communication

### 시민과 함께하는 소통의 장

인천시의 문은 언제나 활짝 열려 있습니다

굿모닝인천(goodmorning.incheon.go.kr)  
인터넷방송 민트TV(tv.incheon.go.kr)  
인터넷신문 I - view(enews.incheon.go.kr)  
블로그(blog.naver.com/flyic)  
트위터(twitter.com/smartincheon)  
미투데이(me2day.net/incheon4u)

페이스북(www.facebook.com/visionincheon)을 통해 인천과 만나세요.  
시민여러분의 의견이라면, 쓰든 달든 언제나 환영합니다.

#### 독자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인천에 대한 생각과 인천의 발전을 위한 제언 등을 자유롭게 적어 보내주세요. 채택되신 분께는 작은 선물(문화상품권 1만원권 1장)을 드립니다.

#### 보내실 곳

우편번호 405-750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인천광역시 대변인실 <굿모닝인천> 독자마당 담당자 앞 ☎ 032-440-8305 홈페이지(goodmorning.incheon.go.kr)로도 받습니다. 마감은 매월 20일까지입니다. 응모하는 분의 이름과 주소, 연락처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접수됩니다.

### 대중교통 체계를 자세히 알려 주었으면

<굿모닝인천>을 통해 우리시의 다양한 소식과 이야기를 접하며 매년 감동하고 있습니다. 세련된 디자인, 좋은 사진, 시민에게 가까이 다가선 발로 뛰는 기사... 고맙습니다. <굿모닝인천>을 사랑하는 독자로서 의견을 내봅니다. 우리시는 경제자유구역, 구도심 개발 등으로 빠르게 변하고 있고 그만큼 교통체계에도 큰 변화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대중교통체계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소식지에 게재해, 시민이 대중교통을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_ 김용국 옥련2동

### 약자까지 보듬는 인천을 사랑해

처음 <굿모닝인천>을 만난 것은 고등학교 1학년 때입니다. 담임선생님께서 <굿모닝인천>의 열혈 팬이셨기에 저도 책을 구독해 보게 되었지요. 원고를 써서 응모하고 그 글이 책에 실려 기뻐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꾸준히 찾아오는 <굿모닝인천> 덕에 인천을 더 사랑하게 됐어요. 고등학생이던 제가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굿모닝인천>도 더 세련되고 깔끔하게 변했네요. 제가 특수교육을 전공해서 장애에 대해 관심이 많기에 이번 '해광학교 오케스트라'에 대한 글이 참 좋았답니다. 사회적 약자까지 다양한 계층을 보듬는 <굿모닝인천> 덕에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_ 안젤라 남구 주안2동

### 인천에서의 한옥스테이

동사무소에서 우연히 <굿모닝인천>을 보았습니다. 민원을 처리하는 시간에 읽어보았는데 인천의 생활정보가 한가득 담겨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됐어요. 특히 '한옥스테이'가 가장 마음에 들었습니다. 안동 하회마을에서나 한옥에 머무를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강화에도 이런 곳이 있다니 부모님과 꼭 하룻밤 쉬다 오고 싶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이젠 시간 날 때 마다 꼭 <굿모닝인천>을 읽어야겠어요.

\_ 오미래 계양구 계산2동

### 인천이 옛것을 지키며 발전하길

추억을 사고파는 송현동 중앙시장 이야기를 읽으며, 저마다 옛 기억이 새록새록 살아났으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때 북적였을 시장이 인적이 드문 폐허로 변해가는 모습이 안타깝워 마음이 싱숭생숭합니다. 부디 인천이 아름다운 추억을 조금이라도 간직하며 개발됐으면 좋겠습니다. 인천을 사랑하는 시민의 간절한 바람입니다.

\_ 김은영 남구 도화3동

### 진정성 있는 교육이 펼쳐지길

졸업시즌을 맞아 학교 주변이 시끌벅적합니다. 그런데 그 안을 들여다보니 교정이 각종 쓰레기로 넘쳐나더군요. 성적을 올리는 것도 좋지만 기본적인 생활예절을 지킬 줄 아는 어른으로 키우는 '인성교육'이 점차 사라지는 듯하여 아쉽습니다. 교육시설이나 환경이 좋아진 데 반해 교육의 내용이 자꾸 뒷걸음질치지 않도록 진정성 있는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_ 이용운 남동구 구월남로

### 주차문제 해결되었으면

제가 살고 있는 간석3동은 빌라들이 밀집해 있고 도로가 좁아 주차문제가 심각합니다. 저는 항상 주차할 곳이 없어 사회복지관이나 노인복지관에 주차를 하고 15분 정도 걸어서 집으로 가곤합니다. 그것도 밤에만 가능하지 낮에는 장시간 주차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동네는 뒷산이 있어 공기가 좋고 교통도 좋아 서민들이 살기 좋은데, 단지 주차문제 때문에 주민들이 돈을 벌면 이사를 갑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집을 지을 때 주차장을 마련토록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고층아파트를 많이 지어 싼 값으로 임대해 빌라나 주택이 적어지면 지금보다 주차공간이 여유로워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_ 남궁금자 남동구 간석3동

### 추억을 그리며

<굿모닝인천> 2월호를 보니 중구 용동 큰우물먹거리 골목의 칼국수집 '초가집' 이야기가 나오네요. 문득 중학생 때의 일이 생각납니다. 저는 중구 답동에 있는 송도중학교를 다녔는데, 학교가 신포시장하고 가까워 친구들과 신포시장에 있는 칼국수집에 자주 가곤 했습니다. 당시 비디오키가 나온 지 얼마 안 되어 칼국수집에서 홍콩 느와르 영화를 자주 보기도 했답니다. 문득 그리운 그때 추억이 떠오릅니다.

\_ 오원택 연수구 옥련동

### 가까이 품은 바다

인천에 살지는 않지만 우리 노부부는 가끔 인천으로 나들이를 가곤합니다. 드넓은 바다를 바라보며 휴식을 취하고 근처에 있는 조개구이집에서 오뎅한 시간을 보내기도 하지요. 바다 주변이 오밀조밀 늘어난 가게들로 좀 어지럽긴 하지만, 멀리 않은 곳에 바다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물론 바닷가를 좀더 깨끗하게 정비하면 더할 나위 없겠지요. 다른 분들도 인천바다의 아름다움을 만끽하길 바랍니다.

\_ 김선호 광명시 하안동



시민이 송영길 시장 트위터(@bulloger)를 통해 문의한 것에 대한 해당 부서의 답변입니다.

@bulloger 송시장님 가정오거리 뉴타운 사업, 어떻게든 해결방법을 찾아야할 것 같습니다.

경인고속도로와 경기침체 등으로 지연된 루원시티 사업에 대해 경인고속도로 기능 유지 및 상업·업무용지 축소 등의 방안을 마련, LH공사와 협의해 금년 하반기부터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1과)

@bulloger 루원시티 도시재생사업이 사업성 재검토 결과 수익 계산이 잘못되어 취소됐다 하는데, 이 문제는 누가 책임지나요? 또 LH공사에서 지급한 토지보상비는 어떻게 되나요? 텃빈 가정오거리 주변은 당분간 유령도시로 행하겠군요.

루원시티 도시재생사업 취소는 잘못 알려진 내용으로 이주대책 등과 관련해 현재 각 주민대책위들과 정기적인 간담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인고속도로와 경기침체 등으로 지연되는 루원시티 사업에 대해 경인고속도로 기능 유지 및 상업·업무용지 축소 등의 방안을 마련, LH공사와 협의해 금년 하반기부터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1과)

@bulloger 시장님, 연안부두의 라이프 아파트의 환경에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이주대책에도 관심을 가져주세요.

라이프아파트를 비롯한 항만주변 주거환경문제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코자 정책연구과제(항만 주변지역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기초 연구)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동연구결과와 주변여건 등을 감안해 주거환경개선 방안을 강구하고 필요 시 전문기관의 용역 시행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항만공항시설과)



#### 사람을 찾아주세요

이름 권태원(당시 만 70세, 남)  
발생일자 2007년 10월 7일(일)  
발생장소 인천시 남동구 구월1동  
신체특징 치매증상, 우울증, 척추수술 필요, 왼쪽 다리가 불편, 왼쪽 새끼손가락을 굽히기 힘들.  
제보처 어린이재단 실종아동전문기관  
02-777-0182,  
www.missingchild.or.kr



## 봄빛 흠뻑 물든 녹빛 따라 걷다

봄이다. 피어나는 꽃과 나무가 햇살에 젖어 더 푸르고 싱그럽게 빛난다. 하지만 슬며시 다가와 스리슬쩍 지나가는 것이 또 봄이다. 서두르자. 이 아름다운 계절이 사라지기 전에, 봄기운 흠뻑 물든 산으로 가자. 인천에는 계양산을 시작으로 도시 곳곳을 지나 봉재산까지 이어지는 동맥 녹지축이 있다. 생명력 가득한 대지의 생기가 이 동맥을 타고 흐른다. 햇살이 이끄는 데로 바람이 손짓하는 데로, 그 길 따라 봄을 만난다.

글 정경숙 본지 편집위원 사진 정정호 자유사진가



한남정맥 인천 구간

계양산

내륙산지 녹지축



천마산

원적산

함봉산



만월산

만수산

거마산

관모산



문학산

오봉산



청량산

봉재산



3월. 겨울과 봄의 경계에서 저울질하던 기온의 무게중심이 봄 쪽으로 성큼 옮겨졌다. 야멸치게 불던 바람이 언제 그랬냐는 듯 부드럽게 뺨을 스치고 햇살은 길고 따사롭다. 겨우내 묵은 페이지를 북 찢어내고 3월을 맞이할 때의 마음은 새롭다. 그 설레는 마음 안고 봄 맞으러, 인천의 산으로 간다. 인천에는 한남정맥의 한줄기로, 계양산을 시작으로 천마산~원적산~함봉산~만월산~만수산~거마산~관모산~오봉산~문학산~청량산을 지나 봉재산으로 이어지는 인천 동맥 녹지축이 있다. 52km에 이르는 산과 구릉은 시내를 굽이굽이 돌며 인천에 맑은 기운을 퍼트린다. 회색빛 도시에 이렇듯 자연이 푸르게 빛나는 것은 우리의 축복이다.



## 계양산~천마산~원적산

계양산으로 산행의 첫발을 디뎠다. 계양산은 해발 395m로 인천도심에서 가장 높은 산이다. 한 발 한 발 하늘과 가까워질수록 복잡한 세상이 잊혀지고 마음이 편안해진다. 경인여대 옆으로 난 등산로를 따라 1시간 30분 정도 오르니 어느덧 정상이다. 그 어디를 둘러보아도 한 폭의 그림. 서쪽으로 영종도와 강화도가 남쪽으로 인천시내가 내려다보인다. 저 멀리 인천을 벗어나 부천, 김포, 서울 일대도 한눈에 펼쳐진다. 이곳은 사월이면 진달래가 지천에 퍼 가슴에 뜨거운 불을 지필 것이다. 산 끝자락은 징매이 생태통로로 이어진다. 이 통로는 8차선 도로가 나면서 끊어진 산과 산을 잇는 고마운 다리다. 우리시가 녹지축 연결사업의 일환으로 2년 여간의 공사 끝에 지난 2009년 완공했다. 징매이 생태통로를 지나 천마산에 이른다. 산세가 높고 가는 길 굽이굽이에 돌이 깔려 있어 발걸음을 느리게 붙잡지만, 그 거친 느낌이 싫지 않다. 그렇게 얼마 안 가 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지구가 눈앞에 펼쳐진다. 당장 보이는 것은 먼지 날리는 공사현장이지만 언젠가 푸른 보석이 눈부시게 빛을 발하는 날이 오리라.

원적산으로 가는 길은 경인고속도로가 가로막고 있다. 시는 이곳을 루원시티사업에 반영해 녹도로를 계획이다. 원적산에서 함봉산으로 이어지는 녹지축도 안타깝게 6차선 도로로 끊겨 있다. 시는 여기에 징매이 생태통로와 같은 터널식 통로를 놓아 산과 산을 자연과 사람을 잇는다. 공장과 자동차가 뿜어내는 매연을 나무와 풀이 맑게 걸러 도시가 편히 숨쉬는 그날을 기다린다.



### 함봉산~만월산~관모산

함봉산으로 향한다. 산은 착하다. 야트막하여 산을 오른다기보다 가볍게 산책하는 기분이다. 정상에 이르니 동쪽으로 부평 시내가 서쪽으로 서구 일대와 멀리 북향과 주변 공업지대가 펼쳐진다. 그곳에 우리나라 산업발전을 묵묵히 이끌어 온 인천의 발자취가 고스란히 투영된다.

함봉산에서 만월산으로 가는 길은 시가지로 막혀 있다. 경인국도와 경인전철 1호선도 이리로 지나간다. 도로와 철도가 겹친 이 구간은 녹지축 복원사업 가운데 가장 풀기 힘든 숙제로 시는 이곳에 녹도를 만들어 그 답을 찾으려 한다. 만월산 안쪽 넓은 계곡 지대에는 인천가족공원이 있다. 이곳은 공동묘지에서 산 자와 죽은 자가 공존하는 공원으로 다시 태어났다. 봄별 아래 새 생명이 움트는 메타세콰이어 가로수길, 산 사이에 난 호젓한 산책로가 삶에 한 줄기 여유를 비춘다.

만월산터널을 건너 만수산을 거쳐 수도권 외곽순환도로로 가는 대로변을 지나 관모산에 오른다. 하늘과 가까운 곳에 이르니 인천대공원이 한눈에 내려다보인다. 엄마 아빠 손을 잡고 공원으로 나들이 갔던 유년의 기억이 아스라이 떠오른다.



### 문학산~청량산~봉재산

인천 중심부에 솟은 문학산은 인천 여느 산이 그렇듯 나지막하다. 아담한 능선을 따라 쉬엄쉬엄 오르니 얼마 안 가 인천의 풍경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진다. 저 멀리 비취빛 바다와 그 위에 잠기듯 신비롭게 떠 있는 섬들이 보인다. 나른한 별, 술술 부는 바람에 서해도 봄을 타고 있다. 다른 쪽으로 눈을 돌리면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 국제도시가 펼쳐진다. 하루도 머무르지 않고 발전하는 송도를 보며 상상을 현실로 일군 인천의 기록을 본다. 그 곳에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심장, 인천이 뛰고 있다. 산허리부터 정상까지는 문학산성의 흔적이 길게 이어진다. 외국의 침입에 맞선 선인의 기상이 전해진 것일까, 지금도 이곳에는 군사시설이 앞바다를 굽어보고 있다.

문학산 내리막에서 조금 지나면 청량산이다. 큰길과 아파트단지가 가르느 두 산을 시는 녹도를 만들어 하나로 이을 계획이다. 산은 다소 가파러 계단과 암석을 타고 오르면 숨이 가쁘지만 그래도 20여 분이면 정상에 이른다. 그곳에서 세상을 내려다보니 바다가 한 폭의 그림으로 곱게 피어난다. 선박들은 바다를 두 쪽으로 가르며 힘차게 항해하고 새들은 유유히 비상한다. 바다를 가로질러 세계로 뻗어가는 인천대교도 보인다. 가슴이 두근거린다. 청량산을 내려 큰 길을 건너 봉재산에 이른다. 산은 해발 100미터 남짓으로 수더분하다. 하지만 산세가 낮아도 산은 산이다. 정상에 오르면 푸른 바다와 그 위에 보석처럼 점점이 뿌려진 섬들이 품에 안긴다.

산에서 내려와 일상으로 가는 길, 눈앞에 보이는 모든 것이 깊고 푸르게 빛난다. 회색빛 도심 속 녹빛 동맥을 따라 흐르며, 나는 봄을 만나고 삶에 여유를 만났다.



문학산(위)와 청량산(아래)

### 자연이 쉽 없이 흐르도록 인천 동맥 녹지축 연결(복원)사업



인천은 한남정맥의 한줄기인 동맥 녹지축을 품고 있다. 계양산에서 천마산~원적산~함봉산~만월산~만수산~거마산~관모산~오봉산~문학산~청량산을 지나 봉재산에 이르는 녹지축 52km는 인천의 숨통을 터주는 녹빛 단비 같은 존재다. 하지만 인천의 산은 공업화와 현대화를 거치면서 잘려지고 상처 입은 아픔을 겪었다. 특히 동서쪽으로 뻗은 경인고속도로, 경인전철, 경인국도는 남북으로 이어진 인천 동맥 녹지축의 허리를 잘라놓고 있다. 이에 우리시는 단절된 구간에 녹지를 조성해 산과 산을 자연과 사람을 잇고 있다.

인천 동맥 녹지축 연결(복원) 사업은 지난 2007년 시작해 오는 2013년까지 마무리하며, 생태통로 2개, 산지연결아치교 2개, 출렁다리 1개, 녹도 6개를 조성한다. 시는 계양산과 천마산을 잇는 징매이 생태통로와 봉재산에서 송기천변을 잇는 녹도를 조성했으며, 현재 원적산과 함봉산을 잇는 생태통로와 만월산과 만수산을 잇는 아치교를 설치하고 있다. 앞으로 문학산과 청량산을 잇는 아치교, 장수천과 오봉산을 잇는 출렁다리, 오봉산과 문학산, 함봉산과 백운공원, 천마산과 원적산, 십정산과 만월산, 만수산과 거마산을 잇는 녹도를 조성할 계획이다. 문의 : 시 환경정책과 440-3533

## 다시 飛上 K리그 돌풍을 꿈꾼다

시민구단 인천유나이티드FC가 지난해의 아쉬움을 뒤로하고 올 시즌 우승을 향한 담금질이 한창이다. 3월 5일 K리그 개막을 앞두고 더 향상된 팀의 모습을 보여주기 감독과 선수단은 혼신의 힘을 쏟았다. 국내 명문구단으로 도약하고 있는 인천유나이티드FC의 올 시즌 전망과 계획을 들어 본다.

글 이용남 본지 편집위원 사진 인천유나이티드FC 제공



### 선수단 절반 이상 신인선수로 구성

인천유나이티드는 올해 모든팀이 우승을 노릴 만큼 K리그 수준이 향상됐다는 판단아래 다방면으로 전력을 보강했다. 올해의 목표는 팀 우승. 감독은 물론 선수들 모두의 열망이다. 유나이티드는 신묘년 완전히 새로운 팀으로 거듭난다. 선수단과 코치진이 상당수 바뀌었고, 선수단 절반 이상이 신인선수들로 구성됐다.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신인 선수들의 기량을 높이는 것을 팀 승리의 관건으로 보고 선수들의 체력다지기는 물론 경기력 향상에 훈련 포커스를 맞췄다. 신인선수들이 다수를 차지하는 만큼 선수들간에 커뮤니케이션이 잘되고 조직력이 돋보이는 팀을 만드는 게 우선이다. 작년 시즌 막바지에 계속 불거졌던 체력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체력강화 훈련도 강화한다. 축구는 다른 어떤 운동보다 조직력이 중요하기에 한두 명의 키 플레이어보다는 전체적인 어울림에 신경을 쓴다. 이에 유나이티드는 그라운드에서 뛰는 선수 11명을 모두 최고의 선수로 만들기 위해 선수 한 명 한 명에 세심히 배려하고 있다. 특히 팀의 핵심인 유병수 선수를 중심으로 유기적인 플레이를 펼칠 수 있는 훈련에 집중했다. 올해 유나이티드의 팀을 이끌 사자성어는 '교학상장(敎學相長)'이다. 감독과 선수 모두가 서로 배우고 가르치면서 함께 성장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유나이티드는 국내 최고의 명문구단으로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시민구단이 기업구단에 비해 여러 가지 열악한 상황이지만 전용구장이 될 송의전용구장을 9월 완공하고, 히딩크축구센터를 완성하면 우수한 인프라와 프로그램으로 국내 최고의 명문 구단으로 발돋움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자원은 시민구단과 기업구단의 격차를 좁히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 팀 전력 보강 외국인선수 영입

유나이티드는 팀 전력 보강을 위해 외국인선수 영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브라질 1부리그 소속 그레미오에서 활약했던 수비수 출신 디에고가 광 전지훈련에 합류했고, 같은 소속 고이아스에서 활약한 미드필드 바이야를 추가로 영입했다. 공수에서 팀의 전력을 높여 올 시즌에 대비한다.

아울러 아시아쿼터제를 통해 우즈베키스탄 국가대표 카파제도 영입한다. 디에고의 경우 전 소속팀에서 주장선수 역할을 했을 만큼 리더십이 있고, 한국 선수들과의 커뮤니케이션에도 상당히 적극적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인천유나이티드는 유소년 축구의 메카를 지향한다. 프로구단 창단때부터 7년째 인천지역 순수 아마추어 중학생 축구대회 '인천유나이티드 미들스타리그'를 열고 있다. 대회는 매년 참가하는 학교가 늘어 청소년 축구축제로 자리 잡았다.

인천유나이티드의 캐치프레이즈는 '마이 프라이드 마이 유나이티드(My Pride My United)'. 팀은 인천시민의 구심체 역할을 하고 있다. K리그 최초로 축구인구의 저변확대와 시민과 함께 즐기는 축구를 위해 다양한 축구교실을 열어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고 있다. 사회공헌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인천 전 지역 유치원과 어린이집 중 신청한 곳을 대상으로 이달 22일부터 '유아 축구교실'을 운영한다. 인천구단 아카데미 감독과 코치진이 강사로 나서 어린이들을 지도하며 인천 선수들도 일일교사로 참여한다. 인천구단의 '유아 축구교실'은 예절교육을 비롯해 달리기, 점핑 등 기본운동과 근력, 순발력, 지구력 등 운동능력 향상과 함께 율동과 게임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꾸며진다.

## 어린이, 성인 대상 축구아카데미 교실

특수학급 어린이를 위한 무료 축구교실도 연다. 석남초, 가좌초, 신석초등학교의 특수학교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달에 한 번 축구교실을 열어,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한다. 바깥나들이 기회가 적은 장애아동들의 심신을 단련하고 스트레스를 날리는 기회다. 축구를 좋아하는 5~13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어린이 축구교실인 '인천유나이티드 아카데미'는 인기 프로그램이다. 축구교실에서는 어린이들의 성장과정에 맞춰 연령에 필요한 운동을 실시한다. 축구를 통해 신체의 유연한 움직임을 단련하고 조직력과 협동심을 배운다. 뿐만 아니라 레벨업 과정에서 더욱 전문적이고 높은 기술을 습득해 성장취감과 자신감을 향상시킨다. 남동, 서구, 연수, 계양, 동구·남구 등 5개지부에서 열고 있다. 가입을 원하는 어린이들은 가입비 3만원, 교육비는 평일 5만원, 주말 6만원이다. 성인 축구클리닉 교실도 운영한다. 3월 6일부터 11월 말까지 진행한다. 클리닉은 계양구 부평초등학교를 비롯한 인천 3개 지역에서 각각 진행하며 수업시간은 1시간 30분이다. 참가자는 볼 컨트롤, 드리블, 트래핑 등 기본기 훈련을 중점적으로 지도받는다. 회비는 주 1회 4주 수업에 5만원(예정)이고 운동복, 축구화 등 개인 장비는 참가자가 준비해야 한다. 축구에 관심이 있는 성인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문의 인천구단 423-1500, academy.incheonutd.com

## 축구유망주 발굴, 히딩크축구센터

히딩크축구센터 건립도 박차를 가한다. 축구 유망주를 발굴하고 축구 전문지도자와 심판을 양성한다. 우리시와 인천 유나이티드프로축구단, 히딩크 감독의 한국 사업권자인 (주)HSC(히딩크축구센터)가 약 250억 원을 들여 내년 하반기에 IHSH를 완공할 계획이다. 연희동 10만 m²(약 3만250평) 터에 천연잔디구장 4면, 인조잔디구장 1면, 시각장애인 전용축구장 1면 등 6면의 축구장이 들어선다. 또 교육동, 스포츠재활센터, 숙소가 건립된다. 히딩크 감독은 1년에 두 차례 이상 이곳을 방문하며 유럽축구연맹(UEFA)의 1급 지도자, 국내외 코치진을 상주시킬 예정이다. 축구 유망주를 키우고 우수 선수를 선발해 해외에 진출시킨다는 구상이다. 국내 축구지도자와 심판을 양성하는 프로그램도 마련한다. 유나이티드는 관객이 찾아오는 축구경기를 위해 재미있는 축구, 팬들이 원하는 축구를 위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작년에는 팬들과 만남의 시간도 갖고, 함께 축구경기를 가지며 끈끈한 연대를 맺었다. 선수들간 소통도 중요하지만 선수와 팬들의 대화, 감독과 팬들의 만남 또한 필요하기에 올해는 기회가 되는데로 더 자주 팬들과 함께하는 자리를 만들 계획이다.

팬 서비스 차원에서 재미있는 경기, 팬들과의 소통으로 2011년 인천유나이티드 경기에 많은 시민들이 축구장을 찾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 Interview

### 허정무 감독



## 6강 플레이오프 진출에 최선을

인천유나이티드의 사령탑 허정무 감독(57). 작년 8월부터 팀을 이끌고 있다. 허감독은 올해 팀을 이끌 사자성어를 '교학상장'으로 삼고 감독과 선수의 부단한 단련과 성장을 꿈꾼다.

허감독은 올해 유나이티드의 목표를 6강 플레이오프 진출로 삼았다. 이를 위해 선수들에게도 분명한 목표를 심어줬고, 목표를 포기하지 않으면 그에 상응하는 결과가 분명히 따라온다는 희망을 줬다.

허 감독은 인천유나이티드가 나가야 할 방향을 세 가지로 정했다. 재정 자립을 이룬 시민구단, 인천을 유소년 메카로, 서울·수원과 수도권더비를 형성하는 것이다.

“시민구단이 한국 축구의 새로운 모델인데 아직도 자리를 못잡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인천을 모범적인 시민구단으로 만들어 K-리그의 희망이 되고 싶다”는 의지를 내보였다.

허감독은 2011년은 인천유나이티드가 재미있는 경기, 팬들과 소통하는 경기를 통해 K리그 돌풍의 주역이 될 것임을 확신한다.



## 2011 인천UTD 경기일정



일정	시간	홈	어웨이	경기장
3월 5일(토)	15:00	상무	인천	상주시민
3월 12일(토)	15:00	인천	제주	인천월드컵
3월 20일(일)	15:00	인천	대구	인천월드컵
4월 8일(금)	15:00	경남	인천	창원축구센터
4월 9일(토)	15:00	포항	인천	포항스틸야드
4월 17일(일)	15:00	인천	성남	인천월드컵
4월 23일(토)	15:00	강원	인천	춘천종합
4월 30일(토)	19:00	인천	전북	인천월드컵
5월 5일(일)	15:00	대전	인천	대전월드컵
5월 22일(일)	15:00	광주	인천	광주월드컵
5월 29일(일)	15:00	인천	수원	인천월드컵
6월 11일(토)	19:00	인천	전남	인천월드컵
6월 18일(토)	19:00	울산	인천	울산문수
6월 25일(토)	20:00	서울	인천	서울월드컵

일정	시간	홈	어웨이	경기장
7월 2일(토)	19:00	인천	광주	인천월드컵
7월 10일(일)	17:00	성남	인천	탄천종합
7월 16일(토)	19:30	수원	인천	수원월드컵
7월 23일(토)	19:00	인천	경남	인천월드컵
8월 7일(일)	19:00	전남	인천	광양전용
8월 13일(토)	19:00	부산	인천	부산아시아드
8월 20일(토)	19:00	인천	강원	인천월드컵
8월 27일(토)	19:00	인천	대전	인천월드컵
9월 9일(금)	19:00	전북	인천	전주월드컵
9월 17일(토)	19:00	인천	포항	인천월드컵
9월 24일(토)	19:00	인천	울산	인천월드컵
10월 2일(일)	15:00	대구	인천	대구시민
10월 16일(일)	15:00	인천	서울	인천월드컵
10월 30일(일)	15:00	인천	상주	인천월드컵

# 너와 나 고운 무지개로 활짝~

우리시에 살고 있는 외국인인 6만여 명에 이른다. 모두 머리색이 다르고 피부색이 틀리지만 따뜻한 마음은 하나다. 너와 내가 무지개처럼 어우러져 아름답게 피어나는 세상을 꿈꾸며, 시가 다문화가정을 지원한다.

글 정경숙 본지편집위원 사진 홍승훈 자유사진가

## 흰색, 검은색도 모두 살색

“모두 살색입니다” 흰색, 검은색, 우리가 살색이라 부르던 크레파스를 보이며 이렇게 말하던 공익광고를 지금도 기억한다. 이 광고는 후에 살색의 이름을 살구색으로 바꾸고 알게 모르게 외국인에게 편견을 두었던 우리를 일깨웠다. 하지만 단지 이름이 살색에서 살구색으로 바뀌었을 뿐, 우리는 여전히 피부색을 구분하고 외국인을 나와 다르게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결혼이민자와 그 가족에게 한국어 및 취·창업 교육, 자녀지원 등 다양한 교육·지원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우리시는 올해부터 센터를 기존 7개소에서 9개소로 늘려 군·구별로 1개소씩 운영하며 더욱 활발하게 다문화가정을 지원하고 있다.

## 마음과 마음을 나뉘오

오전 10시, 아직 이른 시간이지만 남동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한국어수업이 한창이다. 멀리 낯선 이국땅에 온 이들이 가장 먼저 접하는 고민은 그 나라의 언어를 배우는 것이다. 그만큼 학생들은 선생님의 말 한마디라도 놓칠 새라 눈을 반짝이며 수업을 듣고 있다. 베트남, 중국, 필리핀... 저마다 태어난 곳도 살아 온 사연도 다르지만 인천 하늘 아래 내일의 꿈을 키우는 마음은 하나다. 한국어수업은 첫걸음반·초급반·중급반·고급반으로 운영하며, 우리와 마음으로 가까워지기 위해 언어는 물론 한국 고유의 문화와 정서도 가르친다. 또 임신, 출산 등의 이유로 배움터에 오지 못하는 결혼이민자와 그 가족을 배려해 찾아가는 방문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 하나되는 세상을 꿈꾸며

센터는 한국어교육으로 이민자가 자유롭게 언어를 구사하는 수준에 오르면 취·창업 서비스를 지원한다. 한글워드를 작성하고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도록 컴퓨터를 가르치고, 지역 교육기관에서 다양한 나라의 문화를 알리는 강사로 일할 수 있도록 다문화강사 양성교육을 실시한다.

세이노 유코(39, 만수3동)씨는 일본에서 온 결혼이민자로, 2000년 인천과 인연을 맺고 한 남자의 아내이자 세 아이의 엄마로 단란한 삶을 살고 있다. 그 소소하지만 값진 행복은 시의 지원이 있기에 가능했다. 그녀는 자신이 한국어를 배운 남동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현재 다문화강사로 일하고 있다.

“한국에 온 지 오래되어 말을 할 수는 있었지만 글을 쓰는 것이 어려웠어요. 그래서 2년 전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문을 두드렸지요. 이곳에서 한국어를 배우고 또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일할 수 있게 되어 기쁩요.” 세이노 유코씨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타국살이의 설움을 씻고 삶의 기쁨을 찾았노라며 환하게 웃었다. 다르다면 다른 그들, 하지만 다르다는 이유로 ‘너는 너, 나는 나’로 구분하고 마음의 벽을 쌓아서는 안 된다. 너와 내가 무지개처럼 어우러져 아름답게 피어나는 세상을 그려본다.



한국어를 배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다문화강사로 일하는 세이노 유코(39, 만수3동)씨

인천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전국 대표번호 1577-5432

중구 891-1094 / 동구 777-0286 / 남구 875-1577 / 연수구 851-2730

남동구 467-3912 / 부평구 511-1800, 1 / 계양구 552-1016

서구 569-1540 / 강화군 933-0980



## ‘다양한 가게’로 오세요~

올해 1월, 만수동에 다문화가정을 위한 아주 특별한 가게가 문을 열었다. 가게 안에 들어서면 다양한 나라의 색이 깃든 물건이 시선을 붙잡고 감미로운 차향이 코끝을 유혹한다. 이 곳은 생활용품에서 공예품, 먹을거리까지 다문화가정을 위한 갖가지 물건이 있는 ‘다양한 가게’다. 다양한 가게는 남동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자립형지역공동체사업에 선정되면서 문을 열었다. 이곳은 단순히 물건을 파는 공간이 아닌 이민자들의 일터로, 2층에서 이민자들이 모여 정성껏 물건을 만들면 1층에서 이를 판매한다. 가게 수익금은 다문화가정의 일자리를 마련하고 각종 지원사업에 투자하는 데 쓰인다. 가게에서 만난 주민 김상희(37, 만수동)씨는 “아이들에게 다양한 나라의 문화를 알려 주고 또 좋은 일에 동참할 수 있어 가게를 자주 찾는다”며 환히 웃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앞으로도 취입이 어려운 결혼이민자를 위한 사업을 폭넓게 펼칠 계획이다. 문의 467-3915





우리가 스마트폰이나 소셜네트워크(SNS)를 활용한 시청홍보 애플리케이션 운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소셜네트워크인 트위터와 페이스북을 통해 시민과 소통에 나섰고, 시청의 주요행사를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볼 수 있도록 스마트폰 생방송 서비스를 통해 시민에게 한걸음 더 가까이 다가서고 있다. 스마트폰 생중계는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처음이다. 일방적인 주입식 시청홍보가 아닌, 쌍방향으로 서로 소통하는 시대에 발맞춘 것이다. 생방송은 [mlive.incheon.go.kr](http://mlive.incheon.go.kr)로 접속하거나 QR(Quick Response)코드로 찍어 접속하면 된다. 올 상반기 중엔 우리가 운영하는 트위터를 비롯해 페이스북, 미투데이, 블로그, 유튜브 등 5개의 SNS 서비스를 ‘인천광역시 소셜웹’으로 통합해 운영한다.

소셜 웹이 운영되면 5개 SNS서비스를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봐야했던 불편함을 더는 것은 물론, 시청과 관련된 콘텐츠를 시민들이 네트워킹 할 수 있어 네티즌들의 자생적인 소통 생태계를 조성할 것으로 보인다. 또 시청의 주요흐름을 한눈에 검색해 볼 수 있어 한층 진일보한 시청홍보 및 쌍방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해진다. 우리시 홍보미디어도 한번에 시청 및 구독이 가능한 스마트폰 앱으로 개발되어 3월 중으로 서비스를 시작한다. 우리시 홍보미디어로는 월간 오프라인 잡지 ‘굿모닝인천’, 인터넷방송 ‘Mint TV’, 인터넷신문 ‘I-View’ 등이 있다. 우리시 홍보미디어가 한번에 시청 및 구독이 가능한 스마트폰 앱인 ‘인천시미디어’로 통합되면 각 매체의 내용을 한번에 볼 수 있고, 콘텐츠 분산 등의 단점이 보완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시청홍보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인천에 대한 다양한 소식을 손바닥만한 스마트폰으로 언제, 어디서나 접하게 됨에 따라 시민들의 시청이해도 및 참여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시 홍보미디어 ‘스마트’ 하게 본다

### 트위터, 페이스북 등 SNS 통합 서비스

미디어 빅뱅시대를 맞아 홍보의 트렌드가 바뀌고 있다. 손안의 인터넷인 스마트폰의 보급,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체간 융합과 교류로 언제 어디서나 정보 접근이 가능하고, 참여할 수 있는 시대가 됐다. 시도 스마트한 시청홍보로 시민과의 거리를 좁히고 있다.

글 이용남 본지편집위원 사진 하장원 시 대변인실



**모바일 웹** 스마트폰에 최적화되어 만들어진 웹사이트. PC의 홈페이지.

**모바일 앱** 애플리케이션의 약자로서 스마트폰에서 다운받아 실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의미. PC에 설치되어 있는 프로그램.

**QR코드**



QR코드(QR code)는 흑백 격자 무늬 패턴으로 정보를 나타내는 매트릭스 형식의 이차원 바코드다. 종래에 많이 쓰이던 바코드의 용량 제한을 극복하고 그 형식과 내용을 확장한 2차원의 바코드로 중첩의 정보를 가져서 숫자 외에 문자의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다. 지자체에서는 시청홍보영상을 비롯해 이미지, 관광지, 공연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 천년 제국의 과거 캄보디아

역사는 우리에게 영원한 제국은 없다고 가르친다. 막강한 부와 권력으로 천년만년 같  
것 같았던 위대한 왕과 제국도 그 꿈을 이루지 못했다. 역사 속의 제국들은 시간의 흐름 속  
에 단지 자신들의 유적을 남길 뿐이다. 캄보디아의 크메르왕국도 강성한 제국이었다. 제국  
이 남긴 앙코르 유적은 유달리 서글프다. 웅장한 이집트, 로마, 중국 유적에서 결코 느끼지 못  
하는 그런 슬픔을 느낀다.

글 유동현 본지편집장 사진 김성환 포토저널리스트



### Cambodia

수도는 프놈펜이다. 서쪽과 북서쪽은 태국, 북동  
쪽은 라오스, 동쪽과 남동쪽은 베트남과 접하고  
있다. 넓은 평원과 여러 개의 큰 강으로 이루어  
진 캄보디아는 인구 1천5백명. 2천년 동안 캄보디  
아는 인도와 중국으로부터의 영향을 흡수했으며,  
그 흡수한 문명을 다른 동남 아시아로 전파했다.  
캄보디아의 크메르 제국은 12세기에 왕조의 전성  
시대를 누렸다. 400년에 걸친 쇠퇴기 후에 캄보  
디아는 프랑스와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다가 제2  
차 세계대전 이후에 독립했다. 이후 크메르루즈  
의 집권 등 다시 정치적 불안정을 겪었다 오늘에  
이른다.

우리나라와 관련 있는 사실 하나. 1950년대 우리  
나라가 전쟁 후 가난에 허덕일 때 이 나라는 우리  
나라에 경제 원조를 해 주었다. 1955년의 신문 기  
사에 의하면 '캄보자가 원조를 해주었다'는 기록  
이 있다. 원조를 하던 국가는 원조 받고 원조 받  
던 나라는 이제 그 나라를 원조한다. 이렇게 역사는  
영원함이 없음을 다시 한번 말해준다.



**신들의 땅, 앙코르와트** 태고의 고요함과 웅장함이 함께 깃든다. 캄보  
디아 시엠립의 앙코르 유적은 세계적으로도 유례 없는 거대한 역사적  
석조 건축물로 유명하다. 화려한 왕조를 이룬 크메르족이 12세기 중  
후반에 세운 앙코르 제국의 문화유산이다. 그 조각과 부조들의 정교  
함은 현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결코 흉내 내지 못하는 신성함이 깃들  
어 있다. 앙코르와트는 왕도(앙코르)의 사원(와트)이다. 앙코르 유적  
중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한다.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축물 중 하나  
로도 꼽히는 인류의 문화유산이다.

사원 마당을 밟으면 세속에서 신들의 땅으로 경계를 넘는 듯하다. '우  
주의 바다'를 상징하는 폭 200m의 해자(壕字), 즉 성 주위에 둘러 판  
못과 5.5km의 성벽으로 둘러싸인 직사각형의 터 정중앙에 사원이 자  
리하고 있다. 사원 앞에는 커다란 연못이 있다. 사원이 연못 물에 반  
영돼 마치 물 속에 또 하나의 사원이 존재하는 것처럼 신비롭다. 대부  
분의 사원이 동쪽을 향하는 데 반해 앙코르와트는 서쪽을 향해 있다.  
죽은 자의 머리를 서쪽에 두는 크메르인의 풍습으로 미뤄보아 강력한  
왕권을 지녔던 수르야바르만 2세의 무덤일 가능성이 높다.

사원 회랑에는 벽그림이 이어져 있다. 벽면에 섬세한 손길로 새겨진  
부조는 앙코르 예술품 중에 단연 최고라 평가받고 있다. 주로 힌두교  
신화를 주제로 그 시대 사람들의 생각을 지배했던 이야기들이 표현돼  
있다. 3층 중앙사당으로 향하는 계단길은 경사가 70도나 된다. 엉금  
엉금 기어 올라가야 한다. 앙코르와트 꼭대기 층까지 올라가려면 손  
과 발을 다 이용해 기어올라야 한다. 이곳을 지은 크메르족이 신을 향  
한 경배의 의미를 갖게 하기 위해 급경사로 만들었다고 한다.

**안젤리나 졸리 사원** 앙코르와트로부터 1.5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앙코르 톨은 ‘커다란 도시, 위대한 도시’란 의미를 지닌 유적이다. 1050년에서 1066년 사이에 축조되기 시작한 앙코르 왕국의 마지막 성도였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고려시대에 해당하는 시기 동안 그들은 인도차이나 지역 전체를 지배하면서 피라미드를 방불케 하는 건축물과 인구 100만명을 수용하는 대도시를 건설했다. 문명의 건설과 몰락이 너무도 한순간에 일어난다는 사실이 놀라울 따름이었다.

앙코르 유적에서 타 프롬을 그냥 지나칠 수 없다. 타 프롬은 앙코르 톨을 조성한 자야바르만 7세가 모친의 극락왕생을 빌기 위해 지은 불교사원이다. 무엇보다 할리우드 배우 안젤리나 졸리가 주연한 영화 ‘툼 레이더’의 촬영지로 많이 알려진 곳이다. 열대무화과의 스펡나무가 사원의 돌 틈 사이로 거대한 뿌리들이 거인의 손가락이 돼 사원을 붕괴시키고 있다. 왕조의 몰락이란 처연한 역사를 보여주는 것 같다. 한때 최고의 화려함을 자랑했을 법한 곳에 이끼와 넝쿨이 가득한 것을 보면 역사의 냉정함에 정신이 아득해진다. 다른 사원과 달리 복원하지 않은 채 그대로 남겨두고 있다.

앙코르 유적을 발견한 프랑스 박물학자 앙리 무어가 이 사원을 처음 대했을 당시의 느낌에 젖어보라는 뜻이 아닐까. 그 앞에 서면 감동과 연민이 교차한다. 감동은 앙코르 유적의 웅장함과 섬세함이 고, 슬픔은 무너져가는 유적에 대한 연민이다.

최근 세계هند교연합회가 안젤리나 졸리를 캄보디아 힌두교 명에 신자로 위촉하고 앙코르 와트의 유명한 힌두교 사원의 이름을 ‘안젤리나 졸리 사원’로 변경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졸리가 캄보디아에서 아들 매덕스를 입양한 점과 앙코르 와트에서 영화 ‘툼 레이더’를 촬영해 관광객 유치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한 특별한 선물이다.

**물의 도시, 톤레삽** 캄보디아는 ‘물의 나라’다. 일년 중 절반이 우기에 속한다. 엄청난 빗물은 거대한 호수를 만들었다. 크메르어로 ‘거대한 호수’를 뜻하는 톤레삽은 동양 최대의 담수호로 경상남도 면적의 2.5배다. 건기에는 깊이가 1m가 겨우 넘는 수준. 그러나 우기에는 9m까지 깊어지고 면적도 5배 정도 불어난다. 주변은 온통 물바다로 변한다.

톤레삽 호수는 단순히 ‘거대함’에 그치지 않고 ‘위대함’으로 자리 잡고 있다. 호수를 터전 삼아 수상촌을 형성하고 험한 자연을 이겨내며 살아가는 사람들 때문이다. 무려 2만명이 이 호수를 기반으로 살아가고 있다. 호수 위에는 병원과 학교도 있으며 상점은 물론 경찰서 같은 관공서도 있다. 그곳에서 자고, 학교를 다니고, 절을 다니며 생활을 영위한다. 물이 들고 남에 따라 유랑생활이 이어진다. 캄보디아하면 킬링필드가 떠오른다. 1970년대 후반 사회주의 폴 포트 정권이 약 3년에 걸쳐 지식인 등 무려 200만명을 학살한 비극을 말한다. 이후 캄보디아는 베트남의 지원을 받은 캄푸차 인민공화국 정권 아래서 회복을 위한 과정을 밟기 시작해 이제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안정의 길을 걷고 있다. 지난 2월 초 캄보디아는 태국과 11세기 힌두교 건축물인 프레이 비헤아르 사원의 영유권을 둘러싸고 4일 간 교전을 벌이면서 사상자를 냈다. 다시 캄보디아가 전쟁의 소용돌이에 빠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었다. 그렇지만 정작 캄보디아인들은 두려워하지 않는다. 캄보디아에는 이런 격언이 있다. ‘미래를 겁내지 말고 과거 때문에 슬퍼하지 말라.’



## 리더(Reader)가 세상을 리드(Lead)한다

인천이 책 읽는 도시가 된다. 책을 통해 '인천'을 문화도시로 브랜드화하고 공직자는 물론 시민들의 독서하는 분위기 조성에 앞장선다. 책 읽기는 여유없이 각박한 삶을 살아가는 대다수 시민의 정신적 청량제다. 감동과 울림이 있는 양서를 읽으며 마음의 안정과 위안을 얻는다.

글 이용남 본지편집위원

우리시는 시민이 책을 가까이하고, 계층과 나이의 장벽 없이 책 읽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범시민 독서진흥 운동을 전개하고, 유네스코가 지정하는 '세계책의 수도'추진으로 도시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 이를 위해 9대 과제가 추진된다.

5월 공무원, 공단의 전직원



와이번즈의 문학경기장 티켓, 각종 공연티켓, 극장표, 신문 등의 QR코드 스캔 후 모바일홈페이지 접속을 유도, '책읽는 도시, 인천' 콘텐츠를 공유한다. 여기엔 각종 서평, 권장도서 등 책과 관련된 유용한 정보가 수록되어 있다. 계층별 독서진흥 프로그램도 개발, 보급된다.

유아를 위한 북스타트, 어린이, 청소년, 성인을 위한 북그로우, 고령자, 실버세대를 위한 북피니쉬 운동이 전개된다.

도서관 인프라와 1인당 도서보급률도 높다. 현재 인천의 도서관수는 전국 11위, 광역시권 3위다. 장서수는 전국 11위다. 2013년까지 도서관수를 총 60개소로 확충하고, 장서도 연간 30만권으로 늘린다. 정보소외계층인 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도 보급한다. 장애인복지관, 학교 등을 방문하여 책읽어 주는 낭독콘서트를 개최하고, 조손부모 및 한부모가정 어린이를 위한 독서교실을 추진한다. 다문화가족을 위한 다문화 그림책 읽기, 장애인 1대 1 대면 낭독프로그램도 운영한다. 공직사회도 공무원 스스로 술선수범하는 독서문화 확산을 펼친다. 직원의 생일이나 기념일에는 한 권의 책을 선물하고, 승진 인사 시 관례처럼 선물하던 화분을 책으로 바꿔 줄 것을 제안했다. 시는 책읽는 도시 운영으로 문화도시 인천의 위상이 달라지고, 시민들이 자기계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 이달의 서평



#### 스위치

칩 히스 | 웅진지식하우스 | 2010

총 3부로 구성된 본문은 평범한 이들이 만드는 놀라운 결과를 예로 들며, 성공적인 변화로 나아가는 방향을 제시한다. 매력적인 목적지 그리기, 구체적인 행동에서 출발하는 행동 메시지의 기적, 상대의 감정을 움직이는 방법과 작은 성공이 큰 성공을 만드는 사례 등을 다양한 예로 알기 쉽게 들려 준다.



#### 라이벌의 역사

조셉 커민스 | 말글빛남 | 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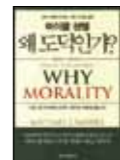
대통령, 정치가, 군인, 혁명가, 왕과 여왕... 그들은 모두 한 개인이었지만 개인의 범주를 넘어 인류의 역사를 변화시켰다. 그들에게는 모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으니 바로 대결을 통해 극복해야 할 라이벌이 있었다는 점이다. 이 책은 역사 속에서 라이벌 관계에 놓인 인물들과 대결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추적한다.



#### 소년을 위로해줘

은희경 | 문학동네 | 2010

힙합을 즐기는 열일곱 살 고등학생 연우의 이야기, 평범하지만 특별한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펼쳐진다. 엄마와 단둘이 사는 연우는 이사 후 새로 전학 갈 학교를 추천하는 자리에서 동급생 태수와 마주친다. 태수의 헤드폰에서 흘러나오는 낯선 음악, 그리고 어느새 비트에 맞춰 함께 움직이는 심장의 박동, 새로운 우정은 그렇게 시작되는데...



#### 왜 도덕인가?

마이클 샌델 | 한국경제신문사 | 2010

한국사회의 근본적이고 중요한 가치인 '도덕'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 민주사회의 도덕성의 의미와 본질, 그를 둘러싼 논쟁을 살펴본다. 공공생활을 움직이는 도덕적 딜레마와 정치적 딜레마를 탐구하면서 도덕성이 살아야 정의가 살아날 뿐 아니라, 보수와 진보를 떠나 무너진 원칙을 공정하게 다시 세움을 강조하고 있다.



### 주제별 추천도서

서명	저자	발행자	발행년	추천기관
지금, 여기의 인문학	신승환	후마니타스	2010	문화체육관광부
왜 도덕인가	마이클 샌델	한국경제신문	2010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천사의 낙원	이동기	위즈앤비즈	2009	문화체육관광부
더 발칙한 한국학	J.스콧 버거슨 외	은행나무	2009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스위치	칩 히스	웅진지식하우스	2010	한국출판인회의
1만년의 폭발	그레고리 코크란	글항아리	2010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세로토닌 하라!	이시형	중앙북스	2010	한국출판인회의
로마에서 말하다	시오노나나미	한길사	2010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우리말 산책	이익섭	신구문화사	2010	문화체육관광부
소년을 위로해줘	은희경	문학동네	2010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좋은 이별	김형경	푸른숲	2009	한국출판인회의
라이벌의 역사	조셉 커민스	말글빛남	2009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자료제공 인천광역시 미추홀도서관 440-6655





## ‘록키의 꿈’ 싹 틔운 금강권투장

시간에 녹슬어 버린 간판처럼 오랜 세월 땀으로 식은 체육관. 줄넘기가 통통 튀는 발과 발을 넘고, 사각의 링에선 복서들의 붉은 글러브가 바람을 가르다. 고막을 울리는 카운트벨이 긴장을 고조시키고 눈빛은 날카롭다. 원시적 스포츠인 권투는 열광하는 관중의 환호소리에 더 흥분하고 격해진다. 지금은 적막처럼 고요한 흥분을 삼켜버린 금강권투체육관에서 복서들은 그들만의 불을 기다리며 희망의 싹을 틔웠다. 그들의 불은 지금도 그곳에서 꿈틀거린다.

글 김민영 자유기고가 사진 정정호 자유사진가

### 인천에서 챔피언 꽃 피우다

“엄마, 나... 챔피언 먹었어!” 흑백 TV 속의 챔피언은 사각의 링 위에서 챔피언 벨트와 글러브를 흔들었다. 권투는 7,80년대 초, 우리나라에 레슬링과 함께 스포츠 광풍을 몰고 온 주역이다. 3분 씩, 15라운드. 복서들은 청춘의 열정으로 주먹을 날린다. 땀으로 다져진 그들 주먹의 끝은 세계를 향해 있었다. 권투는 맨주먹 하나로 상대 선수가 쓰러질 때까지 멈추지 않는다. 11체급으로 나뉘어 다양한 기술과 힘을 요구하는 권투. 복서들은 매일 같은 꿈을 꾸며 인천 최초 권투체육관인 금강권투장에서 땀과 함께 묵묵히 스스로를 단련시켰다.

인천체육전문대학에서 복싱을 배운 홍수환 선수는 세계챔피언을 거머쥐며 세계적 스타가 되었다. 팬더급의 간판스타, 왼손잡이 서정수 선수는 국제대회 5관왕을 차지하지 명성을 드높였다. 도원동에 거주하며 초등학교시절부터 권투를 하기 시작한 서정수는 115승 15패의 아마추어 전적을 이곳에서 일궈냈다. 주니어페더급 임채동 선수와 라이트급 김인호 선수는 프로에서 한국챔피언이 되었다. 국가대표 선수로 LA올림픽에 처음 출전한 박형욱 선수는 11회 아시아 선수권과 ‘86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송림동에 거주한 박형욱,



115승 15패의 서정수 선수와 김광호 관장(왼쪽 두 번째)

형일, 형대 선수는 삼형제 복서로 유명하다. 박형욱 삼형제 선수는 전국학생대회에서 최우수상을 2년에 한 번씩 모두 수상해 ‘돌주먹 형제’가 되었다.

흑~ 업퍼 흑. 잼 잼... 스트레이트! 거친 숨소리에 힘을 주는 트레이너의 비수 같은 한 마디가 체육관에 터춧대감처럼 자리 박힌 사각의 링에서 주문처럼 울려 퍼진다. 몽롱한 정신을 추스르게 하는 주문이 텅 빈 사각의 링에서 맴돈다. 그 주문은 복서들의 주먹을 쇠주먹, 망치주먹으로 만들었다. 챔피언이 되기 위한 그들의 인내는 숙명. 맞아도 오뎅이처럼 일어서고 날아오는 주먹에도 버티고, 참고, 더 참기위해 그들은 맞고, 뛰고, 샌드백을 두드렸다. 복서들은 피를 토해내듯 태극마크를 휘날렸다. 허리를 두른 황금벨트와 트로피, 챔피언의 꽃은 그들의 눈물과 피로 피어났다. 그들은 왜 그리 간절했을까. 그들의 간절함에 기술과 힘을 얹어 세상을 향해 꽃을 피웠던 곳에는 김광호 관장이 그들과 함께했다.



### 금강권투와 김광호 관장

“매섭게 복서들을 달구고 혹독하게 담금질시켰어요.” 김광호 관장은 호랑이 트레이너다. 길으로는 무서운 만큼 속정도 깊은 김 관장은 제자들을 “내 새끼 같은 존재”라 표현한다. 70년대 전국소년체전 때 선수들의 합숙소로 활용된 체육관은 1973년 7월 인천에서 처음으로 사 업자등록을 하고 권투체육관으로 문을 열었다. 몇 번의 이사를 거친 끝에 1976년, 제물포역 4층 건물 3층에 사각의 링을 다시 만들어 지금을 맞고 있다. 40년 가까운 시간 많은 꿈나무 복서들이 땀을 흘리며 거쳐 갔다.

바쁜 숨 몰아쉬게 한 줄넘기는 벽에 가지런히 걸려 늘어졌다. 짧고 긴 주먹에 빙빙 돌아갔을 샌드백도 여전하다. 체육관 구석구석 그 때의 흔적이 현재와 호흡하고 있다. 오래된 철재 캐비닛 속에 담긴 사진과 시합을 알리는 팜플렛들이 커커이 쌓여있다. 김 관장의 기억은 생생하다. 67세, 김관장을 만든 젊은 날의 시간들이다.

그는 17세 때 권투를 시작했다. ‘기술은 힘을 못 이기고 힘은 기술을 못 이긴다’는 이론을 터득한 그는 스피드와 힘의 원천인 근력운동을 강조하며 지도자로서 길을 걸었다. 인천체육전문대 교수로 재직하고 인천지회장, 한국권투위원회를 거치며 복서들의 트레이너로 세계챔피언, 동양챔피언, 한국챔피언 10여 명을 배출했다. 힘든 고비 고비 선수들과 함께 달리고, 주먹을 날리고 막던 그날의 시간은 아직도 그와 체육관에 남아 그를 흥분시킨다.

“시합에 나가 우승하고 왔을 때가 보람되죠.” 환하게 웃는 그의 미소가 과거로 달린다. 선수의 생명은 철저한 자기관리에서 나온다. 아깝게 챔피언을 놓친 선수들도 많다. 박형옥 삼형제를 국가대표 챔피언으로 못 만든 것이 아직도 한스럽다. 그는 복서로서 자랑스럽고 아까운 제자와 후배를 만나고 있다.



호시절 50~60명의 선수들이 체육관을 메웠다. 챔피언들이 하나, 둘 부상과 함께 사라지기 시작하면서 권투의 환희도 추억의 한 페이지가 되었다. 권투는 이제, 취미와 건강을 다지는 운동으로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옛 모습 그대로 지키고 있는 금강권투체육관에서는 지난 2008년 장혁, 이다혜 주연 드라마 ‘불한당’이 촬영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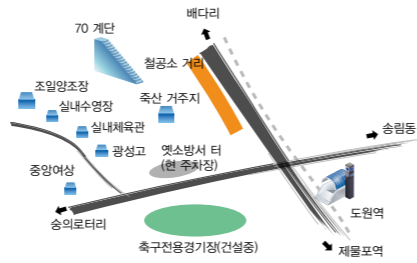
권투시합은 펀치를 맞고 쓰러지면 카운트가 시작된다. 10카운트 중 8카운트에 시합의 의지를 보이면 게임은 다시 시작한다. 한 때 권투는 ‘세월’이란 카운터펀치를 맞고 그로기 상태에 빠졌다. 아무도 체육관을 찾지 않았다. TV에서도 더 이상 권투를 중계해 주지 않는다. 그 자리를 이종격투기가 차지했다. 표도르, 추성훈은 알아도 타이슨, 장정구는 모른다. 카운트가 8카운트까지 갈 지경이었다. 게임이 끝나는 줄 알았다. 그러나 권투는 다시 일어났다. 홍수환의 ‘4전5기’처럼 일어섰다. 그날의 영광과 환희는 감소되었지만 권투는 지금 초등학교에서 중·고등학교 그리고 여성복서에게로 이어지고 있다. 땀땀... 날카롭게 선 카운트 종소리가 쉬지 않고 체육관에 퍼진다.



## 그 언덕엔... 복숭아 꽃이 피지 않는다

산 하나가 도원동을 품고 있다. 그 산을 흔히 모모산이라고 불렀다. ‘모모’는 복숭아의 일본말이다. 도원(桃源)이란 이름 중 복숭아 도(桃)자 때문에 이렇게 불리었다. 그렇지만 이곳에 복숭아밭이 있었을 거라고 미루어 짐작했다면 잘못 짐은 것이다. 그 산은 벌건 민둥산이었다. 일제는 1906년 이 동네를 도산리(桃山里)라고 명했다.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을 일으켜 조선을 침략했던 풍신수길의 활동했던 때를 일컫는 ‘도산시대’에서 도산을 가져다 붙였다. 그 땅 이름에는 아직 일제 잔재가 남아있는 것이다.

글 유동현 본지편집장 사진 김성환 포토저널리스트



① 개관한 지 40년 가까이 된 실내체육관. 비록 시설은 낡았지만 대한항공 점보스와 흥국생명 핑크스파이더 배구팀의 홈코트로서 그 열기가 뜨겁다. ② 교회(도원성결교회)와 사찰(보각선원)이 붙어 있지만 이웃으로서 상생하고 있다.



### 그리운 운동장 최씨

한때 이 동네는 인천의 끝이었다. 산 밑으로 개천이 흘렀다. 개천은 지금의 제2장로교회 앞을 휘돌아 독감다리 밑으로 해서 바다로 흘렀다. 이 개천이 옛 인천의 지경(地境)이었다. 그 밖은 인천이 아니었다. 부천군 문학면과 다주면이었다.

외진 곳에는 멀리 하고 싶은 험한 시설이 들어서는 법. 옛 야구장 앞 소방서가 있던, 지금은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산기슭에 화장장이 있었고 바로 밑 지금의 중양여상 부근에는 전염병 격리 병원인 덕생원이 있었다. 덕생원은 ‘피할 피’자를 쓰는 피(避)병원이라고도 불리었다. 한낮에도 음산한 분위기가 감돌 수밖에 없었다.

피해가고 싶은 지역이었던 이곳이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진 것은 1934년에 공설운동장이 들어서면서부터다. ‘그라운드장’이라 불리던 이 운동장은 드럼통을 펴서 만든 철판에 시커멓게 타마구(콜타르)를 바른 담장이 길게 쳐졌다. 주머니 사정이 좋지 않은 사람들은 모모산 기슭에 앉아 한가롭게 경기를 즐기곤 했다. 그동안 세 차례의 전국체전과 한 차례의 소년체전을 개최했던 공설운동장은 이제 다 헐리고 그 자리에 축구전용경기장이 한창 조성 중이다. 산 언덕에서 운동장을 내려다보니 문득 관중들의 함성 소리에 섞여서 낮익은 안내 방송이 바람결에 실려 오는 듯 했다. “운동장 최씨, 운동장 최씨, 본부석까지 와 주세요.”

산 정상 부근에는 1976년에 실내체육관이 건립되었다. 몇 차례 수리를 거쳤지만 건립될 당시의 모습을 거의 그대로 지니고 있다. 2004년에 개봉한 영화 ‘역도산’의 레슬링 장면이 이곳에서 촬영되었다. 촬영 전, 로케이션팀이 전국을 다 뒤졌지만 마땅한 곳을 찾지 못했다. 4,50년대 일본 체육관의 분위기가 나는 곳을 찾지 못한 것이다. 그들은 도원체육관을 보고나서 뿔 듯이 기뻐했다. 레드 액션, 역도산 역을 한 설경구가 마루 중앙에 설치된 링 위에서 당수 한방으로 거구를 쓰러트렸다.





죽산 조봉암 선생이 잠시 거주했던 것으로 알려진 골목



남한 최초의 소주공장 조일양조

### 남한 최초의 소주공장

도원동에는 죽산 조봉암의 흔적이 있다. 죽산이 1948년 초대 농림부 장관으로 입각하기 전까지 도원동 12번지에 살았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옛 소방서 바로 위 언덕에 있는 일본식 주택 골목이다. 이 골목에는 인천부(府)에서 지은 40여 평짜리 부영(府營)주택 48채가 있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시에서 대단위 택지를 조성해 지은 시영주택단지다. 현재는 오래된 축대 위에 쌓은 서너 집이 남아 있다.

최근 모 지역신문을 통해 죽산이 살았던 집이 이곳에 현존하고 있다고 보도돼 큰 관심을 끌고 있다. 죽산의 맏딸 조호정(83)씨와 이웃에 살던 몇몇 사람들의 증언을 토대로 한 것이다.

죽산의 도원동 거주에 대해 다른 의견도 있다. 해방 후 이곳으로 이주해서 살아 온 유재관(90)옹으로부터 죽산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그 집에는 주로 죽산의 조카가 기거했고 죽산은 가끔 와서 그곳에 한동안 머물곤 했어요. 그 집도 지금은 남아 있지 않고 얼마 전 헐리고 빌라가 들어섰지요.” 죽산이 거주했다고 알려진 집에 현재 살고 있는 집주인 김기승(65)씨도 죽산이 자신의 집에 살았다는 이야기는 금시초문이라고 고개를 갸우뚱거린다.

산을 넘어 선화동 쪽으로 발걸음을 옮기면 뉴월드그린 아파트 앞에 오래된 건물 하나를 만난다. 남한 최초의 소주공장 조일양조장이다. 평양에 세워진 ‘조선소주’보다 6달 늦은 1919년 10월 12일 설립됐다. 일본인이 세운 이 회사의 상표는 ‘금강표’였다. 1925년 기계를 증설해 대량생산에 나섰고 시음행사 같은 적극적인 마케팅까지 도입해 판매량을 늘렸다. 1928년 전국 소주양조업자연합회 회장사를 맡을 정도였다. 조일양조의 소주는 만주, 사할린 등지에 진출할 만큼 인기를 끌었다.

사업이 잘되자 축구팀도 창단했다. 우리나라 최초의 실업축구팀이라 할 수 있다. 조일양조장팀의 실력은 각종 대회를 휩쓸 만큼 강팀이었다. 해방 후 1947년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대표팀을 구성할 때 선발선수 대부분이 조일양조장 소속이었다. 그러나 1931년 기준에 사용하던 수돗물을 지하수로 바꾸려고 대형 우물을 뚫다가 부근의 지하수가 모두 말라버려 주민의 원성을 샀다. 게다가 탱크가 폭발하는 사고가 터져 주민과 갈등이 많았다. 이후 일제가 전쟁으로 인해 곡물 소비를 통제하기 시작하면서 경영난에 빠졌다. 해방 후 세금 체납으로 공장이 차압되고 생산도 중단하면서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 달동네에 오르는 계단

50m 정도 높이의 야트막한 산이지만 모모산은 유동 쪽으로 경사가 급한 편이다. 옛 도원동사무소 옆에 설치된 ‘70계단’은 가파른 산을 직코스로 오르내릴 수 있게 만든 70개의 계단길이다. 이 계단을 오르면 율목동, 화수동 등 구도심의 정경이 바로 눈앞에 펼쳐진다. 옆에는 40계단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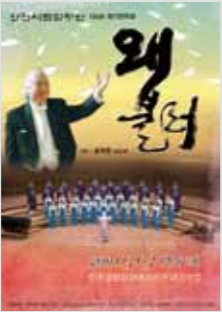
산 정상에는 광성중·고가 자리 잡고 있다. 당시 인천서장으로 부임한 류충렬씨가 1955년 구두담이 등 불우 청소년들을 모아 인천소년수양원을 개설하면서 시작된 학교다. 65년 광성고등공민학교를 거쳐 오늘에 이른다. 송의동 쪽 산기슭으로는 인천중앙여상이 있다. 1954년 김응순 목사가 어려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경구락부를 세운 것을 모태로 한다.

경인선 철길이 있는 큰길로 나가면 쇠 두드리는 소리가 난다. 도심 속의 대장간이다. 이 거리는 2,30년 전 만해도 철공소 거리였다. 쇠 두드리는 소리를 좇아 도원철공소로 들어갔다. 나중호(63) 사장이 시뻘쭙게 달궈진 쇠를 모루 위에 놓고 두드리고 있다. 한 아주머니가 쇠고챙이 10여 개를 신문에 싸 들고 왔다. “굴파는 짝새예요. 굴 따다보면 구부리지거나 무더져요. 날 세우려고 갖고 왔어요.” 대장장이는 시뻘건 화로에 짝새들을 올려놓는다. 달궈진 짝새는 쇠망치 세례를 받는다. 불꽃이 튈다. 정말 짝 소리 못하고 매를 맞지만 덕분에 짝새는 새로운 날을 세운다. “40년 넘게 쇠를 두들겼죠. 예전에는 한 집 건너 철공소가 있어서 닳, 대형 집게, 곡괭이, 낫, 호미 등은 물론 특수 주문용 철기구도 이 동네에서 다 만들었어요.” 이제는 철공소 대신 기성품을 파는 가게들이 그 자리를 채웠다. 이 거리에는 더 이상 ‘대장간의 합창’이 울려 퍼지지 않는다.





시립교향악단 연주회 <천상의 노래-모차르트 레퀴엠>  
일시 3월 10일(목) 오후 7시 30분  
장소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티켓 R석 1만원, S석 7천원, A석 5천원  
문의 엔티켓 1588-2341



인천시립합창단 제124회 정기공연  
<왜 불러>  
일시 3월 3일(목) 오후 7시 30분  
장소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티켓 R석 1만원, S석 7천원  
문의 엔티켓 1588-2341



콘서트 <김소현의 스윗세레나데>  
일시 3월 12일(토) 오후 8시  
장소 부평아트센터 해누리극장  
티켓 전석 2만5천원  
문의 500-2000



새 봄 음악회 <금난새의 스프링 클래식>  
일시 3월 19일(토) 오후 5시  
장소 부평아트센터 해누리극장  
티켓 R석 3만원, S석 2만원  
문의 500-2000

### 3월의 展

<2월 25일~3월 3일>  
은희정 석사 학위청구전 인천문화예술회관 중앙전시실 ☎ 010-7667-3488  
제6회 경인인물화작가회 정기전 인천문화예술회관 소전시실 ☎ 016-395-5873  
제물포고등학교 사진반 창단 30주년 기념사진전시회  
인천문화예술회관 미추홀실 ☎ 010-8191-8201  
<3월 9일~15일>  
조윤수 개인전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 가운갤러리 ☎ 760-3468  
<3월 11일~17일>  
자연의 소리 인천문화예술회관 미추홀실 ☎ 010-5236-8816  
<3월 12일~13일>  
제8회 인천 난 명품전 인천문화예술회관 대전시실, 중앙전시실 ☎ 011-9781-8478  
<3월 18일~24일>  
제1회 황기숙 개인전 인천문화예술회관 중앙전시실 ☎ 011-9089-4045  
박희정 개인전 인천문화예술회관 소전시실 ☎ 011-767-4016

### 새 봄 음악회 <금난새의 스프링 클래식>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지휘자 금난새와 인천시립교향악단이 연주하는 클래식 음악회. 친근한 레퍼토리와 금난새의 맛깔 나는 해설이 더해져 클래식의 묘미를 맛볼 수 있다.  
특히 피아니스트 지용과 소프라노 서활란 등 국내 우수 음악가들과의 협연으로 수준 높은 무대를 선보인다.

### 전시 <생활의 발견 展>

인천문화재단(대표이사 강광)과 부평아트센터(관장 조경환)가 공동 개최하는 기획전시 '생활의 발견'은 인천문화재단이 인천미술은행 사업으로 지난 6년 여 동안 모은 작품들로 구성했다. 이번 전시는 총 116점에 이르는 작품 가운데 소소한 일상을 독특한 시각과 유려한 표현으로 잡아 낸 작품 37점을 엄선해 선보인다. 평면(회화, 사진)작품 32점과 입체(조각)작품 5점이 펼쳐지는 저마다의 이야기가 보는 즐거움을 선사한다. 대표작품은 김보섭 작가의 '수복호', 최용백 작가의 '수인선 소래철교' 등이다. 일시 1월 26일(수)~3월 17일(목) 장소 갤러리 꽃누리 티켓 무료 문의 500-2000



### 인천시립합창단 제124회 정기공연 <왜 불러>

7,80세대의 대표적인 싱어송라이터 송창식의 주옥같은 곡을 인천시립합창단 전임작곡가 우효원이 세련된 합창곡으로 편곡해 들려준다. 또 한국의 젊은 합창작곡가들이 새롭게 편곡한 우리 가곡과 세계의 애창곡을 에너지 넘치는 무대로 선보인다. 화사한 봄날을 연상시키는 따스하고 정겨운 선율이 가득한 음악회가 되리라 기대한다.

### 시립교향악단 연주회 <천상의 노래-모차르트 레퀴엠>

음악회의 중심 곡은 모차르트가 죽음을 앞두고 혼신의 힘을 기울여 쓴 레퀴엠 D단조, 미완성의 걸작이라 불리는 이곡은 전통적인 레퀴엠 방식에 따라 독창자, 합창, 관현악을 필요로 하는 8부 형식으로 구성돼 있다. 가난과 질병 그리고 세상 사람의 무관심 속에서 철저히 고립된 채 쓰러진 천재 작곡가의 비애와 광기를 인천오페라합창단과 함께 표현한다.

### 콘서트 <김소현의 스윗세레나데>

국내 최고 뮤지컬 여배우 김소현과 함께하는 화이트데이 콘서트. 이번 콘서트는 뮤지컬 넘버, 클래식, 뉴에이지 음악까지 모두 감상할 수 있다. 또한 화이트데이를 기념해 신청자에게 깜짝 프로포즈 기회를 주고 공연 후에는 김소현의 팬사인회도 진행할 예정이다. 뮤지컬 배우 손준호가 게스트로 참여해 무대를 더욱 빛낸다.

tue 화	1	8	15	22	29
wed 수	2	9 어하동동이야기 보따리 <선녀와 나무꾼> 오후 7시 부개문화사랑방 3천원 ☎ 507-5996	16	23 뮤지컬 <딩동이의 치카푸카> 오전 10시 40분, 오후 4시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전석 1만5천원 ☎ 사랑극단 꼬마세상 016-774-0014 <봄에 피어나는 바람꽃> 오후 7시 부개문화사랑방 3천원 ☎ 507-5996	30 어린이 환경교육뮤지컬 <문어의 바다사랑이야기> 오전 10시 40분, 오후 4시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전석 1만5천원 ☎ 010-6757-1948
thu 목	3 인천시립합창단 제124회 정기연주회 <왜불러> 오후 7시 30분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R석 1만원, S석 7천원 ☎ 1588-2341	10 인천시립교향악단 천상의 노래 - 모차르트 <레퀴엠> 오후 7시 30분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R석 1만원, S석 7천원, A석 5천원 ☎ 1588-2341	17 현대캐피탈 오토몰렌 <남경주의 뮤지컬콘서트> 오후 7시 30분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초대 ☎ 02)780-5056 경인방송-백영규의 <가고 싶은 마을> 오후 7시 부평문화사랑방 3천원 ☎ 032-505-5995	24 뮤지컬 <딩동이의 치카푸카> 오전 10시 40분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전석 1만5천원 ☎ 016-774-0014 극단미추홀 제62회 정기공연 <맥베드 영(影)> 오후 7시 30분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전석 1만원 / ☎ 812-4123	31 어린이 환경교육뮤지컬 <문어의 바다사랑이야기> 오전 10시 40분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전석 1만5천원 ☎ 010-6757-1948
fri 금	4	11 어하동동이야기 보따리 <선녀와 나무꾼> 오후 7시 부개문화사랑방 3천원 ☎ 507-5996	18	25 인천시립교향악단 제306회 정기연주회 <체코의 보석 - 드보르작> 오후 7시 30분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R석 1만원, S석 7천원, A석 5천원 ☎ 1588-2341 극단미추홀 제62회 정기공연 <맥베드 영(影)> 오후 7시 30분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전석 1만원 ☎ 812-4123 이탈리아로의 음악여행- Nino Rota 탄생 100주년기념 오후 7시 / 부평문화사랑방 / 3천원 ☎ 505-5995	
sat 토	5 The 신승훈 Show 오후 7시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VIP석 11만원, R석 9만9천원 S석 8만8천원, A석 7만7천원 ☎ 1688-6675 책 먹는 여우 오전 11시, 오후 2시, 4시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전석 2만원 ☎ 1544-4852	12 동화 뮤지컬 <아기돼지 삼형제> 오전 11시, 오후 2시, 4시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전석 2만원 ☎ 1544-3901 김소현의 스윗세레나데 오후 6시 부평아트센터 해누리극장 전석 2만 5천원 ☎ 500-2000 ☎ 760-3455	19 가족뮤지컬 <호두까기 인형> 오후 2시, 4시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일반 2만원 ☎ 011-655-5128 웹빙밴드 크레용의 영상음악회 오후 4시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 짜리재출 전석 6천원(1인 4매) ☎ 760-3455 새 봄 음악회 <금난새의 스프링 클래식> 오후 5시 부평아트센터 해누리극장 R석 3만원, S석 2만원 500-2000	26 제9회 임미희오페라단 정기공연 <내영혼의노래> 오후 7시 30분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R석 5만원, S석 3만원, A석 2만원 ☎ 265-8683 경기도립 극단 <춘향기> 오후 3시, 6시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 짜리재출 전석 6천원 ☎ 760-3455	
sun 일	6 The 신승훈 Show 오후 4시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VIP석 11만원, R석 9만9천원 S석 8만8천원, A석 7만7천원 ☎ 1688-6675 책 먹는 여우 오전 11시, 오후 2시, 4시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전석 2만원 ☎ 1544-4852	13 토모켈러(Tomo Keller) 바이올린 리사이틀 오후 7시 30분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초대 ☎ 811-3500 동화 뮤지컬 <아기돼지 삼형제> 오전 11시, 오후 2시, 4시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전석 2만원 ☎ 1544-3901	20 가족뮤지컬<호두까기 인형> 오전 11시, 오후 2시, 4시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일반 2만원 ☎ 011-655-5128 화인청소년오케스트라<제10회 정기연주회> 오후 4시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초대 ☎ 010-2378-2619	27 콘서트 <오케오꿈> 오후 3시, 7시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R석 7만7천원, S석 6만6천원 A석 5만5천원 ☎ 761-0007 아트웹버오케스트라 창단연주회 오후 6시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전석 1만원 ☎ 873-4442	
mon 월	7	14	21	28	



## 배움으로 ‘나’를 찾다

55세에 고교 입학 김순자

어린시절 어려운 형편으로 학교에 다니지 못한 어르신들이 뒤늦게 책과 연필을 잡았다. 그리고 배움을 향한 뜻을 굽히지 않고 묵묵히 만학의 길을 걸어 마침내 빛나는 졸업장을 가슴에 품었다. 지난달 8일 남구 학익동에 있는 남인천중·고등학교에서 열린 졸업식. 자리에 앉은 학생들은 교복을 입은 어린 청소년이 아닌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나이 지긋한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였다.

김순자(55)씨는 이날 졸업장을 받은 367명의 졸업생 가운데 한 사람이다. 김씨는 병마에 시달리면서도 학업에 전념하며 못 다 이룬 꿈을 펼쳤다. 그는 지난 1997년 원인 모를 고열에 시달리면서 몸이 망가져 담낭을 떼어내고 췌장도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됐다. 지금도 하루 네 번 혈당을 체크하고 정기적으로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몸이 아픈 것도 배움을 향한 열정을 어찌하지는 못했다.

“항상 이 순간을 꿈꿔왔습니다. 행복한 가정이 있는 부족할 것 없는 삶이지만 늘 배움에 목말랐습니다. 그러기에 지금 학교에 다니며 공부하는 순간순간이 행복합니다.”

어린소녀는 어려운 가정형편 때문에 엄마가 우는 것이 그저 싫었다. 부모를 위해 형제를 위해 제 한 몸 희생하는 것이 딸의 당연한 도리라 생각했다. 그래서 초등학교만 졸업하고 어린 나이에 일찍이 직장에 다니며 가족을 뒷바라지했다. 오빠가 엄마가 정성껏 다려주신 교복을 입고 학교에 다닐 때 그녀는 제 형제가 읽을 책을 사기 위해 돈을 벌어야했다. 그런 노력 때문일까. 지금 그녀의 오빠는 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이 됐다. 하지만 조금 늦었을 뿐, 졸업장을 가슴에 품은 그녀는 지금 충분히 행복하다.

“한때 길이 없다고 생각한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학교에 다니면서 잃어버렸던 꿈을 다시 찾았습니다. 처음 교실에서 수업을 받을 때의 가슴 벅찬 감정을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그때 그 마음 그대로 꿈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김순자씨의 도전은 끝나지 않았다. 아니 이제부터 시작이다. 그녀는 올해 남인천고등학교에 입학하고 2년 뒤 대학에 진학해 훗날 노인사회복지사가 되겠다는 꿈을 안고 있다.

가난했던 시절, 가족을 위해 먹고 살기 위해 포기해야 했던 배움의 길. 황혼이 깃드는 나이에 이르러서야 다시 잡은 책과 연필이 이제 살아가는 이유가 됐다. 스스로에게 더 당당해지기 위해 선택한 배움의 길. 뒤늦게 받은 졸업장이 그녀의 가슴에서 찬란히 빛난다.

글 정경숙 본지 편집위원 사진 김보섭 자유사진가





## 세계인 심금 울릴 ‘위대한 탄생’

색소폰 영재 허민

“제 연주를 들으면서 사람들이 힘을 얻고, 희망을 갖게 됐으면 좋겠어요.”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재교육원의 유일한 색소폰 영재, 허민(14, 인천부원중학교2)군이 밝히는 색소폰연주자로서 장래 희망이다. 허군은 최근 모방송 예능프로그램에 수차례 나오고, 인기드라마 출연으로 연예인 못지않은 스타가 됐다. 방송에서 화려하고 멋진 연주로 사람들의 시선을 확 사로잡은 허군이 색소폰을 시작한 것은 5년 전이다. 목회활동을 하는 부모님의 권유로 시작한 색소폰 연주는 처음 노인들을 위한 봉사활동의 일환이었다. 노인들에게 맛깔스럽게 트로트 연주를 들려주기 위해 시작한 것이 숨어있던 재능을 자연스레 발견하는 계기가 됐다.

재능은 발견했지만 그것을 키우고 빛낼 여건은 안됐다. 허군은 동네학원, 무료강습과 유튜브 동영상을 보면서 독학으로 색소폰을 익혔다. 피나는 연습에 연습으로 서울대 관악동문 콩쿠르 1위, 전국 청소년 기악경연대회 최우수상, 오사카 국제음악콩쿠르 1위의 영예와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재교육원 입학의 영광을 안았다. 연주의뢰나 콩쿠르 곡 연습때는 유튜브에서 곡을 다운받아 연습하고 익혔다. 거기에 자신의 음악적 감성과 해석을 더해 음악영재로 화려하게 부각됐다.

허군의 부모는 우리 아들이 색소폰을 부니까 돈 있는 집의 자식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가정이 어려워 변변한 교습한번 받지 못했다고 말한다. 순전히 노력과 재능 하나로 현재의 위치까지 달려온 셈이다.

허군은 다른 색소폰연주자들이 팝이나 트로트를 하는 것과 달리 클래식을 전공하고 있다. 색소폰으로 세계 무대에 서고 싶기 때문이다. 일본의 노브야 스가와처럼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클래식연주자가 되는 것이 꿈이다. 허군에게 색소폰은 자신의 희망이자 꼭 이뤄야 할 목표다. 요즘은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재교육원 시험을 앞두고 매일 10시간씩 연습에 몰두하고 있다. 또 조만간 클래식만으로 꾸며진 색소폰 연주 무대에 설 계획도 갖고 있다.

허군은 아직도 앳되고 수줍은 모습이지만 자신의 꿈과 목표를 성취하려는 의지는 단단하다. 자신이 설계해 놓은 꿈을 하나하나 이뤄가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미래 세계 무대에서 멋진 연주를 할 위대한 탄생을 기대해 본다.

글 이용남 본지 편집위원 사진 김보섭 자유사진가

인천관광의료재단 5월 설립



인천관광의료재단이 지난 2월 16일 시청에서 설립을 위한 발기인 대회를 가졌다. 인천에 외국인 의료관광객 유치를 늘리고 지역 의료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재단은 오는 5월 설립을 목표로 이달 보건복지부에 설립 허가를 신청할 예정이다. 재단에는 길병원, 인하대병원, 인천사랑병원 등 27개 의료기관을 포함해 시, 인천관광공사, 인천국제교류센터 등 총 38개 기관이 참여한다. 재단 이사장은 정무부시장이 맡고 참여기관들이 총 5천만 원을 출연해 설립할 계획이다. 시는 재단이 설립되면 해외 자매, 우호도시를 중심으로 공동마케팅을 펼쳐 연간 2천여 명 수준인 인천 방문 외국인 의료관광객을 오는 2014년까지 2만명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6개국어로 서비스되는 의료관광 전용 홈페이지를 구축, 국내외 홍보에 활용하고 해외환자 유치 팸투어와 공동마케팅에 주력할 방침이다. 또 의료 코디네이터를 양성해 일선 의료기관에 배치하고, 외국인 관광객의 접근이 쉬운 송도국제도시 내 컴팩스마트시티에 의료관광 홍보관을 설치, 운영하기로 했다. 문의 : 시 보건정책과 440-2732

도심형 자전거 '미추누리' 3월부터 보급

우리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민간업체와 공동으로 개발한 도심형 자전거를 오는 3월부터 시민들에게 보급한다. '미추누리'로 이름 붙여진 이 자전거는 무게가 11.8kg이고, 버스과 지하철 내부에서도 접어서 휴대할 수 있게 제작됐다. 보급 가격은 28만2천원이며 대당 10만원씩의 시 보조금이 지원돼 실제 개인 부담금은 18만2천원으로 책정됐다. 시는 2월 중 시내 대리점 모집을 마치고, 이달 중순부터 만12세 이상 시민을 대상으로 보급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문의 : 시 도로과 440-3723



청년구직자 맞춤형 직업훈련 실시

우리는 만15~35세 청년 구직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직업훈련 기회를 제공한다. 시는 기업의 채용 예정인원이 있는 직종에 대해 청년 구직자를 무료로 훈련시켜 취업과 연계할 방침이다. 올해 훈련과정은 경리·회계실무 25명, 전산·세무회계 30명, 물류운송·차량수리 20명, 컴퓨터·응용기계 25명, 전산회계·컴퓨터활용 20명, 3D기계설계 25명, 자동차검사 20명 등 총 5개 직종, 165명이다.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www.incheon.go.kr)의 알림창을 참고하면 된다. 문의 : 시 일자리창출과 440-4232

경제자유구역 테마형 복합쇼핑몰 조성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청라지구, 영종지구에 국내외 관광객과 주민을 겨냥한 테마형 복합쇼핑몰을 조성하는 방안이 본격 추진된다. 최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개최가 3년여 앞으로 다가오고 경제자유구역 상주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송도·청라·영종에 각각 대규모 쇼핑공간을 조성, 시너지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영종지구에는 수십 개의 고급 브랜드 매장과 편의시설이 밀집한 아웃렛형, 청라지구에는 스포츠·레크리에이션·쇼핑이 어우러진 리조트형을 검토 중이다. 영종지구의 경우 운북동 일대 미단시티나 용유, 무의복합도시 등이 후보지로 꼽히고 있다. 송도국제도시에는 이미 롯데그룹이 지난해 11월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NSIC)와 1.3공구 8만4천500㎡에 1조원대 쇼핑몰을 개발·운영하는 계약을 맺고 복합쇼핑몰 건립 절차를 밟고 있다. 이곳에는 백화점, 대형마트, 멀티플렉스 영화관, 아이스링크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문의 : 인천경제청 453-7325



해빙기 안전사고 조심하세요

우리시 소방안전본부는 해빙기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3월 25일까지 해빙기 안전대책을 추진한다. 시 소방안전본부는 시·군·구에 전담 태스크포스를 구성, 24시간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했다.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건설공사장, 축대, 옹벽, 지하차도, 대형광물, 유원시설 등 357곳에 대해서는 관리 상태를 점검할 예정이다. 또 민관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군구 자체관리대상 시설물, 주택, 판매시설 등 56곳에 대해 현장점검을 벌이기로 했다. 문의 : 시 소방안전본부 870-3052

5월에 인천어린이과학관 개관

우리는 5월 초 계양구 방축동에 '인천어린이과학관'을 개관한다. 과학관은 시가 총 사업비 666억원을 들여 2만1천600㎡의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1만5천㎡ 규모로 건립했다. 내부는 연령별 전시관, 기획전시관, 4D영상관, 어린이도서관, 강당 등으로 구성됐고 외부에는 옥상공원장, 옥외전시공간, 편의시설 등을 갖췄다. 전시관 내 시설 대부분은 어린이들이 손으로 직접 만지며 체험을 통해 '스스로 생각하는 과학'을 경험하도록 꾸며졌다. 시는 현재 내부 마감공사와 전시물 설치를 하고 있으며 운영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과학교육 전문인력을 채용할 예정이다. 과학관 관람시간은 오전 9시~오후 6시이며 매주 월요일은 휴관한다. 입장료는 어린이 2천원, 성인 4천원이고 인천시민은 50% 할인해준다. 관람정보는 홍보 홈페이지(www.icsmuseum.go.kr)에서 확인. 문의 : 시 아동청소년과 440-4923



영종~청라 잇는 제3연륙교 건설

우리는 지난 2월 17일 오후 시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하늘도시와 청라지구를 잇는 제3연륙교 건설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의, 의결했다. 제3연륙교는 길이 4.85km(육상 1.9km, 해상 2.95km), 폭 27m(왕복 6차로) 규모로, 청라지구에서 경인고속도로 직선화 구간, 제2외곽순환고속도로와 연결되도록 계획됐다. 총 사업비는 5천억원이며 LH와 인천도시개발공사가 각각 7대 3의 비율로 자체 조달한다. 교통수요는 개통 첫해인 2015년 1일 4만9천420명에서 2034년 8만356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시는 오는 7월 제3연륙교 사업성 검토용역이 끝나면 국토해양부와 본격적인 협의를 벌여 올해 하반기 공사를 시작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국토부는 제3연륙교 건설시 기존 인천공항고속도로의 통행료 수입 감소에 따른 재정부담 증가 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시는 제3연륙교 건설이 지연돼 인천국제공항 인근 영종하늘도시와 주변 지역 개발 및 투자 유치가 차질을 빚자 2014년 말 준공을 목표로 제3연륙교 건설을 서두르고 있다. 시는 국토부를 설득하기 위해 영종도 주민 등 일부에 한해 제3연륙교 통행료를 면제하고 일반 이용자에게는 통행료를 징수해 제3연륙교 때문에 수입이 감소한 다른 민자도로에 지원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문의 : 시 도시계획과 440-4602

세계모의유엔회의 8월 송도서 열려요

반기문 총장, 세계각국 대학생 600명 참석



우리는 유엔본부와 공동으로 오는 8월 10~14일 송도국제도시 내 송도컨벤시아에서 제3회 세계모의유엔회의(Global Model UN Conference·GMUN)를 '지속 가능한 발전-자연과 조화로운 인류 발전'을 주제로 연다. 유엔이 공식 주관하는 모의 유엔회의인 이 행사는 지난 2009년 스위스 제네바에서 첫 회의가 열렸고, 지난해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두 번째 회의를 가졌다. 올해 행사에는 세계 각국의 만18~26세 대학생 600여 명과 초청 인사 100여 명, 일반참가자, 내외신 기자단 등 총 1천200여 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을 비롯해 유엔세계협회(WFUNA) 회장, 각국 유엔협회장, 주한대사 등이 참석해 의미를 더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는 시 예산을 들여 분쟁국가와 최빈국의 대학생들을 특별초청 할 예정이다. 참가 대학생들은 유엔 의사규칙에 따라 다양한 국제문제에 대해 기초연설을 하고 토론을 벌이며 실천계획을 담은 결의안을 채택하게 된다. 시는 모의유엔회의 참가 대학생과 국내 대학생간 만남의 장을 마련하고, 인천지역 고등학생들에게도 참가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와 연계한 퍼포먼스를 하고 홍보 부스를 운영하는 방안도 추진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세계 각국의 대학생들이 참가하는 이번 행사를 통해 대한민국과 인천을 알리고 국제도시로서의 이미지를 부각시키는데 주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모의유엔대회 참가자격은 각국의 모의유엔회의에 1회 이상 참가 경험이 있는 18~26세 대학생으로, 공식홈페이지(www.un.org/gmun)를 통해 UN공보처에서 접수, 선발한다. 신청기간은 학생운영진은 3월 15일까지, 일반대표단은 5월 15일까지다. 문의 : 시 국제협력관실 440-4953

## 인천평화컵 국제유소년축구대회 열려

인천유나이티드와 중국 운남성 곤명시 축구협회가 공동주최하는 '인천평화컵(U-13) 국제유소년축구대회'가 지난 2월 15일 중국 운남성 곤명시 훙타 스포츠센터 잔디구장에서 개막식을 갖고 경기를 진행했다. 훙타스포츠센터에서 올해 처음으로 열린 이번 대회는 한국(인천유나이티드), 중국(곤명운남성대표), 북한(4.25체육단), 태국(방콕 크리스찬 컬리지) 등 모두 4개국이 참가해 풀 리그로 진행했다. 이날 열린 개막식에는 송영길 시장을 비롯해 각국 축구관계자 및 선수, 남북체육교류협회원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인천평화컵 국제유소년 축구대회가 승부를 떠나 스포츠 교류 평화를 이루고 화합하는 대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이번 대회를 계기로 남북화해 분위기가 무르익어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르는 초석이 되길 바란다는 뜻을 밝혔다. 특히 송 시장은 축사를 통해 "13세 어린이들의 스포츠교류가 남북화해 분위기를 조성해 제7회 대회로 중단된 경평축구대회를 인평축구대회로 부활 시키길 바란다"는 뜻을 밝혔다. 아울러 "인천평화컵 국제유소년축구대회가 스포츠 발전에 큰 도움을 주고 나아가 아시아 평화와 우의를 증진하는 역할을 하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의 : 시 체육진흥과 440-4078



## 전국 장애인동계체육대회 2위 달성

지난 2월 15일부터 18일까지 강원도, 서울일원에서 개최된 제8회 전국장애인동계체육대회에서 인천선수단은 16개 참가 시·도 중 금2개, 은9개, 동15개 총 26개의 메달과 점수 1만1천256점으로 인천장애인 체육 역사상 역대 최고 성적인 종합 2위를 차지하는 기염을 토해냈다. 인천은 당초 전년도보다 1단계 상승한 종합 3위를 목표로 출전했다. 종목별 스키는 금2, 은3, 동12 총점 6천443점으로 2위를 차지하고, 빙상은 은6, 동3 총점 4천813점으로 1위를 차지했다. 휠체어 컬링은 아쉽게도 강호 경북을 이기고 8강 진출을 꺾었으나, 경기도와의 재경기에서 패해 예선탈락의 아픔을 겪었다. 다관왕 부문에 있어서는 알파인·수퍼대회전에 처녀 출전한 김송이(지적장애, 여, 석정여고)선수가 2관왕을 차지했고, 대회 마지막 날 제8회 전국장애인동계체전 지도자상에 인천시장애인빙상연맹 장승규 감독이 수상했다. 우리시 선수단 정의성 총감독은 "이번 대회를 위해 선수와 코치, 임원할 것 없이 작년 7월부터 끈기와 열정으로 훈련에 임했으며, 또한 우리시는 장비구입 등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고 말했다. 문의 : 시 장애인체육회 571-0564



## 선학경기장에 장애인체육관 건립

우리시는 오는 2014년까지 연수구 선학경기장 부지에 장애인체육관을 건립할 계획이다. 체육관은 7천㎡의 부지에 지하 2층, 지상 4층, 연면적 1만290㎡ 규모로 건립된다. 주요 시설은 다목적 체육관, 수영장, 볼링장, 장애인편의목욕시설 등이다. 총 사업비는 302억원으로, 시는 자체 예산 212억원에 국고보조금 90억원을 지원받을 계획이다. 문의 : 시 체육진흥과 440-4082

## 강화·영종지역 광역버스정보시스템 구축

우리시가 김포와 영종지구를 운영하는 광역버스의 편리한 이용을 위해 광역버스정보시스템 구축사업에 들어갔다. 시는 이를 위해 올해 30억원을 들여 인천~김포~강화 구간과 인천~영종지구를 운행하는 정류소 안내기(BIT)150개를 올해 안으로 설치할 예정이다. 시는 현재 인천지역에 531개의 시내버스정보 안내기를 비롯해 103개의 광역권 버스 안내기 등 모두 727개의 안내기를 설치해 놓고 있다. 시는 그러나 최근 인천~김포~강화지역과 인천~영종지구를 운행하는 광역버스의 편리한 이용을 위해 강화 및 영종지구에 대한 이용자 현황을 파악하기로 했다. 시는 이 지역에 대한 이용자 현황 파악이 마무리 되는대로 영종과 강화지역에 광역버스 안내기를 집중 설치해 나가기로 했다. 시는 이와 함께 버스정보시스템 구축(가공서버)1식과 센터시스템 성능개선 사업도 병행기로 했다. 문의 : 시 버스정책과 440-3945

## 인천경제청 - 극지연구소 송도청사 건립 협약



인천경제청은 지난 2월 17일 극지연구소와 송도국제도시내 청사 건립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인천경제청은 송도5·7공구 3만5천887㎡의 청사 부지를 제공하고, 건립에 필요한 총 사업비 882억원을 전액 국비로 지원한다. 연구소는 2015년 완공을 목표로 연구동을 포함한 본관동과 극지지원동, 기숙사, 특수연구시설, 극지홍보관 등을 갖춘다. 1단계로 내년까지 연구기반 시설을 구축, 청사 이전을 시작할 예정이다. 극지연구소는 100% 정부 출연기관으로, 남·북기지를 지원하고 국내최초의 쇄빙선 아라온호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 2006년 경기도 안산시에서 송도국제도시로 이전, 송도테크노파크 건물 일부를 임차해 사용 중이다. 문의 : 인천경제청 453-7393

## 폐소형 가전 재활용 활성화 사업벌어

우리시가 올해 폐소형 가전 제품 재활용 활성화 사업을 벌인다. 시는 수거율을 높이기 위해 수거함에 해당 제품을 버릴 경우 배출수료를 면제해 줄 방침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시민들이 휴대폰과 선풍기, 청소기, 컴퓨터 등 소형 가전제품을 버릴때 배출수수료 스티커를 구입해야 하는 불편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시는 사업 추진을 위해 군·구에서 관련 조례를 개정토론하고 주민자치센터와 공동주택 등에 가전제품 수거함 122개를 설치했다. 시는 우선 상반기 시범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수거기간을 운영하고, 하반기에는 전 지역으로 확대할 전망이다. 수거된 중고 가전제품의 판매 수익금은 지역 기초생활수급자, 소년소녀가장 등에게 지원된다. 문의 : 시 청소과 440-3565



## 계양산 보호 조례제정

우리시는 계양산 골프장 건설 전면 백지화 추진과 관련, 계양산 보호를 위한 조례제정에 나선다. 시는 그동안 개발과 보전 사이에서 논란의 대상이 돼왔던 계양산을 보호하기 위해 조만간 지역주민과 시민단체들과 잇따른 간담회를 열고 늦어도 오는 5월 안으로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다. 시는 주민 및 시민단체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계양산 보호를 위한 5년 주기의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계양산 자연조사 등 체계적인 관리에 대한 내용을 조례에 담기로 했다. 시는 또 민간보조 등을 통해 계양산 자연보호 및 자연생태교육을 지원하고 20명 내외의 계양산보호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는 내용도 조례에 담을 예정이다. 문의 : 시 공원녹지과 440-3672



## 서해5도 관광활성화 토론회

우리시는 지난 2월 21일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국제회의장에서 '서해5도 관광활성화'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송영길 시장의 개회사와 김상길 시 경제수도정책관의 기조발제, 교수·관광 전문가들의 발표·토론 등으로 진행됐다. 김상길 정책관은 서해 5도 지역의 낮은 접근성과 부족한 관광프로그램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또 지금의 해상 교통수단만으로는 관광객 유치가 어렵고 3천급 선박의 조기 투입을 위해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영봉 한반도발전연구원장은 "서해접경지역에서의 관광 확대를 통해 대결과 긴장의 바다를 대화와 화합의 바다로 변화시켜 평화의 기반을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 시 경제수도추진본부 440-3277



### 3월 개교 신설학교 방문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2월 16~21일까지 인천신도시지역 인 논현지구, 송도국제도시, 청라지구 등에 3월 새로이 문을 열 신설학교 11곳을 방문해 개교준비 상황 등을 살펴봤다. 교육위원회 의원들은 이번 점검기간 동안 각 학교들의 교구 납품 현황과 인사발령, 급식시설 등 개교준비 사항을 꼼꼼히 살펴보고 관계자들에게 개교일이 얼마남지 않은 만큼 학습환경과 교육활동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공사가 끝나지 않은 학교들에 대해서는 소음과 분진 등으로 학생들의 수업차질과 공사장 인근의 안전사고 등이 우려됨에 따라 정상적인 학교운영과 학생들의 안전에 더 철저하게 대비해 줄 것을 주문했다.



### 운남초 방문, 연평도 학생 격려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해 11월 23일 연평도 포격사건으로 연평도 초·중·고 학생들이 임시학교로 사용하고 있는 영종도 소재 인천운남초등학교를 지난 2월 8일 현장방문했다. 이날 방문에는 교육위원회 위원과 인천광역시청 관계관이 참석한 가운데 학생들의 학사운영 및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학교시설을 둘러보며 학생 및 교직원들을 격려했다. 위원들은 2011년 신학기부터 연평도 현지 학생수용 계획과 교육과정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 굴업도 오션파크 복합관광단지 조속개발 청원

인천시 웅진군 덕적면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 480명의 서명을 받아 '굴업도 오션파크 복합관광단지의 조속한 개발을 촉구하는 청원서'를 지난 2월 16일 시의회에 제출했다. 청원서의 주요내용은 웅진군 주민들의 염원인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민간기업에서 복합관광단지를 추진했으나 2010년 6월에 환경단체의 반대로 사업이 취하되어 주민들이 큰 좌절을 겪고 있다는 내용이다. 또한 작년에 일어난 천안함 사태와 연평도 사건으로 인해 웅진군 도서는 대외적으로 안보불안 지역으로 인식되어 현재 관광객이 60% 이상 급감한 실정으로 굴업도 오션파크 복합관광단지의 개발이 속히 추진되어 관광산업 활성화를 통한 주민들의 생계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시 차원에서 적극적인 노력과 협조가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청원을 소개한 문화복지위원회 이상철 의원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굴업도를 중심으로 한 인근지역에 복합관광단지를 조성한다면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고 안보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도 희석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할 뿐 아니라 인천시 전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 서부천 유지용수 공급방안 정책간담회

인천시의회 산업위원회는 지난 2월 17일(목) 오후 2시 인천시 계양구청 신비홀에서 전문가, 시민단체, 시민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부천(서부간선수로) 유지용수 공급방안 마련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인천시의회가 시민위주의 열린 의정을 구현하기 위해 개최하게 되었으며, 지역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서부간선수로가 생태하천으로 거듭나면서 하천을 유지할 수 있는 용수의 확보와 지난해부터 추진되고 있는 계산천의 고풍의 강 선도사업, 자연형 하천으로 되살아난 굴포천의 유지용수 공급 등 인천의 대표적 명소가 될 하천의 근간이 되는 유지용수의 바람직하고 효율적인 확보와 연계방안에 대하여 전문가, 시민단체, 지역주민 등의 폭 넓은 의견을 구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간담회에서 인천시 최명근 물관리과장이 '굴포·계산·서부천 유지용수 연계 공급방안'을, 한국농촌공사 홍종수 지역개발팀장이 '서부간선수로 관련 물 순환 연계 검토'란 주제로 친수생태공간 조성과 유지용수 공급방안에 대해 주제발표를 했다.



### 동인천역 주변 쪽방촌 방문

인천시의회는 관내 소외지역을 찾아가는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애로사항을 의정에 적극반영함으로써 시민과 소통하는 제6대 의정을 실현하고자 한다. 이에 지난 2월 11일 의장 및 지역구 시의원 등으로 방문단을 구성해 중구 동인천역 주변 쪽방촌 등 저소득층 지역 및 신포시장을 방문하여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격려했다.

### 의정발전 자문위원 위촉

인천시의회는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자치입법 등 의정활동 지원과 의정발전을 위한 정책연구 등을 통해 시민과 소통하고 희망을 주는 의회상을 정립하고자 '인천시의회 의정발전 자문위원회 위원 발족식'을 가졌다. 지난해 7월 1일 인천시의회 제6대의회가 새롭게 출범하면서 시민과 소통하고 희망을 주는 의회상을 정립하고자 각 분야별 전문적이고 적극적인 활동대상자로 총 25명으로 구성했다. 앞으로 의정발전자문위원은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책자료와 대안을 제시해 시민복지와 인천시발전을 위한 시책오류를 최소화하는 역할을 한다. 특히 무분별한 각종사업 개발로 재정의 건전성을 해치고 막대한 예산을 낭비해 시민들의 지탄을 받는 일이 없도록 집행부 감시와 대안을 제시하는 전문적인 자문을 하게 된다.



### 2011년도 회기일정 134일로 확정

인천시의회는 2011년도 회기운영 일정을 확정했다. 회기는 임시회 6회 68일, 정례회 2회 66일로 총 8회 134일이다. 1월 21일부터 31일까지 열린 제190회 임시회는 시정보고, 실국별 업무보고, 조례안 및 기타안건 처리, 3월 10일부터 21일까지 열리는 제191회 임시회는 시정질문 추진실적보고, 시정질문 등이 실시된다. 4월 11일부터 22일까지 열리는 제192회 임시회는 결산검사 위원선임, 조례안 및 기타안건처리, 교육청 추경예산안을 점검하며,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조례안 및 기타안건 처리는 제193회 임시회에서 처리된다. 제194회 제1차 정례회는 6월 14일부터 7월 11일까지 28일간이다. 시정질문 추진실적 보고, 2010년도 결산승인, 조례안, 기타안건처리, 시정질문, 추경예산안이 처리되며, 9월 16일부터 26일까지 개최되는 제195회 임시회에선 행감사무 감사계획 의결, 조례안 및 기타안건처리가 진행된다. 10월 17일부터 28일까지 12일간 개최되는 제196회 임시회는 시정질문 추진실적 보고,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 조례안 및 기타안건 처리, 주요 예산사업 추진 상황 보고가 이뤄진다. 제197회 제2차 정례회는 2011년 마지막 회기다. 38일 동안 행정사무감사, 시정연설, 추경 및 2012예산안, 시정질문 등의 활동을 벌인다.



## 상임위원회 탐방 ③ 문화복지위원회

### 복지 인천구현에 역량 집중



인천시의 보건사회, 가정복지, 문화관광체육과 관련된 주요 정책의 감독·견제역할을 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위원회는 올해 의정방향을 주민참여와 자치역량 강화를 위해 시민과 함께하는 토론회와 간담회를 자주 열어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현지 방문을 집중적으로 실시해 현장의 소리를 듣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위원회는 위원들의 전문성 강화에도 초점을 맞추고, 취약계층을 비롯한 모든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복지인천을 구현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위원회는 맡고 있는 분야가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부분인 만큼 현지시찰과 시민에게 다가서는 활동을 강화한다. 정책이 효과적으로 마련될 수 있도록 연구하는 위원회, 시정부에 대안과 비전을 제시하여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의정활동을 다짐한다. 시민들이 위원회 활동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높은 만큼 정책과제를 발굴하여 연구하고 노력하는 자세를 견지한다. 이를 위해 전문가 초청 간담회 및 연찬회를 통해 다양한 정책개발과 전문교육으로 의정역량을 배가 시킨다.

올해도 시장현안에 대해 시민의 의견을 모으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공청회 개최를 계획하고 있다. 지난 2월 9일 도서관협회 설립과 관련하여 간담회를 개최했고, 고부가가치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는 의료관광, 급속히 떨어지고 있는 출산율과 관련한 정책방향, 최근 추진되고 있는 복지재단 설립 등 위원회의 의견과 시민의견 수렴이 필요한 사안들이다.

위원회가 집중하고 있는 또 하나의 시 주요 정책은 2014 인천 아시아경기대회의 성공적 개최다.

시민의 뜨거운 관심 하에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개최지가 2007년 4월에 결정되었기에 앞으로 40여 개월 남은 기간동안 주경기장 건립위한 국비확보, 인접경기장 활용 방안, 선수촌과 미디어촌의 보급자리 주택 활용, 경기장 주변 도로망 확충 등 아시아경기대회 준비에 철저를 기한다. 격조높은 문화산업을 육성하고, 미래로 도약하는 젊은 인천으로 그 위상을 드높이는데도 위원회가 앞장선다.

위원회는 시 집행부와와의 관계도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되 시책을 추진해 나가는데 막힘이 없도록 올바른 정책에 대해선 힘을 보태고 아낌없는 조언을 하지만, 잘못된 정책이나 시민 불편사항에 대해서 가차없이 질책하여 시정·개선을 요구할 생각이다. 위원회의 활동이 인천을 문화와 복지가 살아숨쉬는 인간적인 도시를 만드는데 적극 기여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 인터뷰 \_ 이강호 문화복지위원장



###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 전달할 터”

“우리 위원회 업무가 시민들의 삶과 직결된 분야가 많은 만큼 쟁점되는 사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현장을 찾아가 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소통하는 데 주력할 생각입니다.”

이강호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44, 남동2)은 올해 위원회의 의정방향을 현지시찰을 통해 현장의 다양하고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전문성을 키우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올해 문화복지위원회에는 굵직한 현안들이 많다. 의료관광재단·복지재단 설립, 고려강화역사문화재단, 최적의 도서관운영 방안,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지원 등. 시민들의 관심도 크고, 사회적 시선도 많은 사안들이기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 이들 사안에 대한 시민들의 찬반의견을 듣기 위해 토론회나 공청회를 열 계획이다. 수렴된 의견은 시 집행부에 보다 올바른 정책방향을 위한 대안으로 제시할 생각이다.

3월에는 굴업도 관광단지 청원 문제를 살피고자 현장에 가서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 의견을 나누고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이 위원장은 위원들의 전문성 강화에도 힘을 모은다. 눈으로 배우고, 익히는 것만큼 전문성을 키우는 방안이 없다는 생각 하에 현지시찰을 통해 생생한 의견을 청취하고 대안을 제시하며 전문성을 키운다. 이 위원장은 올해도 시민들이, 지역주민들이 편하게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의정활동에 한발 한발 다가가고 있다.

## ‘구도심 활기’에 의정활동 방점

### 클릭! 시의원 \_ 이재병 의원(부평 2)

“초심을 잃지 않고 구도심의 갑갑함, 억울함, 애환을 풀고 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만드는 데 일조하고 싶습니다.” 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이재병 의원(43, 부평2)은 인천을 문화와 복지가 살아숨쉬는 사람중심의 도시를 만드는데 의정활동의 방점을 찍고 있다. 이를 위해 친환경무상급식 정착, 구도심에 사는 노인들의 복지실현, 여성일자리 마련에 주력한다. 의회의 친환경무상급식추진특별위원회 구성을 이끈것도 이런 맥락의 일환이다.

이 의원은 젊은 시의원답게 새로운 소통매체로 떠오르고 있는 SNS(소셜네트워크)를 통한 의정활동에도 열심이다. 트위터나 페이스북을 활용해 자신의 의정활동을 알리고 시민들과 생각을 교환한다. 엄지족과 소통하지 않으면 다양한 사람들의 생각과 의견을 알 수 없다는 생각에서다.

이 의원의 SNS를 통한 소통은 지난해 북한의 연평도 폭격사건 때 큰 빛을 발했다. 참혹한 연평도 현장을 스마트폰으로 찍어 트위터에 올렸고, 그 사진이 전 언론에 보도돼 연평도 사건의 심각성을 처음으로 알리는 계기가 됐다.

이 의원은 제6대 의회 입성 후 화력발전소에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를 촉구하는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 촉구 건의안’, ‘OBS 경인TV 본사 인천이전 촉구건의안’을 발의해 지역현안 해결에도 주력했다. 올해는 시민들이 공공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시설과 학교체육시설 개방과 관련된 조례를 만들고 있다.

기획행정위원회 간사로써 위원회가 주관하는 각종 토론회의 토론자로도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 이 의원은 시민들이 억울한 일이나 불편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제일 먼저 찾아가는 시의원이 되겠다는 의지를 표했다.



## 1880년 ‘서양 부싷돌 통’ 상륙

글 김윤식 시인 · 인천문인협회 회장 사진 홍승훈 자유사진가



조선시대 부싷돌

성냥 역시도 석유와 마찬가지로 1880년에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온 것으로 알려진다. 한말의 개화 승려 이동인(李東仁)이 일본에서 귀국하면서 ‘램프 · 석유 · 성냥’ 같은 일본 제품을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들여왔다는 것이다.

황현(黃玗)의 『매천야록(梅泉野錄)』에 “양화수통(洋燭火筒)이 또한 석유와 함께 성행했는데 민간인들은 그것을 자기황(自起黃)이라 불렀다(洋燭火筒亦隨石油而盛行, 民間謂之自起黃).”라는 구절이 보인다. 고종 17년이니까 곧 1880년의 기록이다. ‘양화수통’은 ‘서양 부싷돌 통’이라는 의미이고 ‘자기황’은 ‘불을 일으키는 황(黃)’이라는 말이다. 이 말은 ‘문지르거나 무엇에 부딪히면 불이 일어나도록, 화약에 다른 물질을 섞어서 만든 고체의 황’ 즉 성냥을 의미하는 것이다.

석유와 마찬가지로 성냥 또한 그 편리함과 유용함 때문에 급속하게 우리 생활 속에 퍼져 나간 듯하다. 황현이 ‘성행’했다는 표현을 쓴 점으로도 그 같은 사실을 짐작할 수 있다. 이처럼 성냥의 수요가 점차 늘어나면서, 국내 시장에 주목한 외국인에 의해 직접 성냥 제조가 시작된다.

“1886년 제물포에 외국인들의 지휘 하에 성냥공장이 세워졌다. 그러나 얼마되지 않아 생산을 중단하게 되었는데, 그 주요 원인은 일본제 성냥이 범람했기 때문이었다.” 1900년 러시아 대장성이 발행한 ‘조선에 관한 기록’이라는 보고서에서 국내 생산을 확인할 수 있다.

그 후 인천에 성냥공장이 세워진 것은 1917년 10월이다.

현재의 동구 금곡동에 설립된 조선인촌주식회사(朝鮮燐寸株式會社)가 그것인데, 금곡동에 자리를 잡은 것은 서울, 경기 지역의 넓은 배후 시장과 함께 함경, 평안 등지에서 생산된 목재를 압록강을 거쳐 인천으로 들여오기가 용이한 그런 이점 때문이었을 것이다.

실제 금곡동은 배다리 인근 지역으로 수로가 서해로 열려 있고 또 경인철도 축현역이 가까워 제품 운송도 수월했던, 그런 유리한 공장입지였다. 『인천 한 세기』의 저자 신태범 박사가 지적했듯이 “서울에는 공장을 세울 만한 부지가 없었고 전력도 인천보다 부족했다.”는 것이다. 금곡동 후방의 고지, 즉 쇠뿔고개 정상 부근에는 인천 최초의 변전소까지 들어서 있었다.

조선인촌은 신의주에 직영 제재소까지 두었는데 직원만 남자 약 2백여 명, 여자 3백여 명 등 총 5백여 명에 이르는 대식구였다. 여성직원이 많은 것은 성냥 생산이 거의 수공업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노동 자체가 단순하고 섬세한 데다 임금도 저렴해서 여성이 많을 수밖에 없었다.

예를 들면, 성냥을 담는 갑(匣)은 종이처럼 얇게 저민 목재를 선을 따라 사각형으로 구부린 뒤 풀칠을 한 종이에 붙여 만든다. 그리고 이 갑을 집어넣는 겉 상자도 그런 방식으로 만든다. 아주 꼼꼼한 노력을 요구하는 일이었다. 거기에 상표를 붙이는 작업, 성냥개비에 인(燐)을 발라 건조시키는 일 등은 차라리 여성들이 더 유리한 노동이었다.

조선인촌은 ‘패동(佩童)’이니 ‘우록표(羽鹿票)’니 ‘쌍원표

(雙猿票)’니 하는 성냥을 연간 7만 갑 생산했는데, 당시 인근 500여 가구가 집에서 성냥갑을 붙여 납품하는 일에 종사했다고 한다.

“그는 아랫집 춘삼네를 통해 성냥갑 붙이는 재료를 얻어 왔다. <중략> 하루 만 개 가까이만 붙였으면 공전이 일 원 오십 전, 그만하면 우선 급한 욕은 면하겠고 그리고 노마 어미에게 할 말도 하겠고, 하루 만 개! 그러나 궁하면 통하는 법이니 인력으로 아니 되란 법도 없으리라. 오냐. 만 개만 붙여라~.”

이 글은 1930년대 인천항을 무대로 한 현덕(玄德)의 소설 「남생이」에 나오는 구절이다. 성냥에 얽힌 당시 인천 하층민들의 삶의 한 단면을 볼 수 있다.

인천의 성냥산업은 광복 후 대한성냥공장주식회사로 이어져 전국을 휩쓸다시피 했다. 그러나 1960년대 이후 ‘라이터’ 산업이 고개를 들면서 점점 사양길로 들어서게 된다. 그러나 1910년대 후반부터 1960년대에 이르는 4,50년간 인천이 성냥의 메카로 전국에 군림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인천하면 성냥을 떠올리고, 또 기묘한 노래까지 생겨나게 되었던 것이다.

별난 역사, 별난 물건 시리즈에 게재된 다양한 성냥의 실제 모습은 중구 차이나타운에 있는 인천 근대박물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곳엔 희귀한 근대자료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관람시간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관람료는 성인 2천원, 학생 1천원. 문의 764-1988



조선 성냥 및 광고 성냥



50년대 말, 나무상자로 제작한 승죽성냥



70년대 대표상품(UN성냥)



1920년대 조선성냥공장 제품  
인천에서 최초로 제작한 대표성냥



1950년대 육각성냥



1960년대 4각성냥  
일제때 조선성냥공장에서 생산  
해방 후 대한성냥공장으로 개명

60~70년대 초 제품  
상표는 다르나 대한성냥공업사에서 생산

해방 후  
10개 한 박스 포장 시  
외부에 부착하던 상표 모음

## ‘인천에서 樂樂樂’

글 로비 카라(오스트레일리아, 영어강사 겸 록가수)



내 이름은 로비 카라이고 한국에서 5년째 살고 있다. 아 니 인천 선학동에서 아내와 함께 아주 재미있는 나날을 보내고 있다. 직업은 민간과 정부교육 분야의 영어강사 로 기업에서도 일한다. 힘들기도 하지만 보람되기에 최 선을 다한다. 내가 가르치는 학생들의 나이는 6세에서 46세로 다양하며 모두 재미있게 영어를 배우고 있다. 직장일 외에도 두 개 음악밴드에 참여하며 음악활동을 하고 있다. 밴드명은 ‘아즈어게인스트(The Odds Against)’와 ‘매드 캐논스(The Mad Cannons)’다. 모두 한국에 사는 외국 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우리들은 모두 친하다. 아즈어게 인스트는 작년 송도에서 공연을 많이 했지만 지금은 서 울의 홍대와 이태원, 대전, 부천, 송탄과 수원까지 활동 범위를 넓히고 있다. 아즈어게인스트는 밴드를 시작한 곳이 인천송도이기에 인천송도밴드로 생각하지만 사실 두 멤버 오스틴 카프만 과 롭 맥마너스는 인천에 살지는 않는다. 오스틴은 서울, 롭은 송탄에 산다. 다른 도시에 살지만, 2010년 4월 밴 드가 결성된 이래 송도에서 많은 공연을 했고 관객들의 열띤 호응을 얻고 있다. 일주일에 보통 한 번 때론 두세 번 한다. 한국인과 외국인 관객들의 호응도 매우 좋다.

공연장도 훌륭하고 운영진도 매우 섬세해 밴드를 잘 이 해하고 돕고 있다. 인천에서의 생활은 즐겁고 유쾌하다. 외국인으로서 송도에 살아 행운이다. 많은 외국인 친구 들이 국제기구에서 일하거나 경제자유구역개발과 관련 한 일을 하기에 송도 근처에 산다. 이곳에는 여가활동이 나 가족단위가 즐길 수 있는 넓은 레저시설이 많아 편리 하다. 무엇보다 흥미로운 것은 신기하고 볼거리 많은 섬 여행을 즐길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과도 비교적 가까워 서 관심있는 문화행사를 볼 수 있고, 다른나라 외국음식 점을 접할 수 있는 것도 매력이다. 나는 한국의 모든 것이 좋다. 한국인들은 훌륭하고 한식 은 세계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이다. 밤 거리도 안전하고 문화는 다채롭고 훌륭하며 역사도 흥미롭다. 하지만 아쉬운 것은 버스와 택시가 신호를 무시하고 달리는 것이 다. 차에 발판이 불규칙하게 만들어져있고 전혀 없는 경 우도 많다. 또 거의 모든 빌딩에 광고판이 보기 흉하게 붙어있어 공해라는 생각이 든다. 그래도 이 모든 것을 나 는 사랑한다. 호주의 가족과 친구들에게 인천에 놀러 오라고 늘 말한 다. 이곳에 오면 다양하고 흥미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기 때문이다.

## 깊은 잠, 편안한 잠



사람이 왜 잠을 자야 하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세상이 어두워지고 심신이 안정되면 자 연스럽게 잠이 쏟아지고 보통 7시간(국내 평균 6시간) 내외의 수면을 취하게 됩니다. 만약 자연 스럽게 잠을 이루지 못한다면 괴로움이 상당하겠지요? 편안한 수면을 위해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열 가지 규칙을 알려드립니다.

글 이승연 인천의료원 정신과 과장



### 피해야 할 다섯 가지

#### 1. 카페인 음료

커피, 콜라, 초콜릿, 녹차처럼 카페 인이 많이 든 식품은 중추신경을 흥분시켜 잠드는 것을 방해합니다. 하루에 2~3잔 이하로 제한하고 특 히 오후 3~4시가 넘으면 마시지 않도록 하세요.

#### 2. 술

잠이 오지 않을 때 술을 마시면 잠이 잘 온다고 생각하기 쉽습 니다. 그러나 실제로 알코올은 깊은 수면을 방해하고 잠이 일찍 깨도록 만듭니다.

#### 3. 담배

담배에는 니코틴과 같은 신경전달물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각성 효과가 나타나니 담배를 피하세요.

#### 4. 잠에 대한 강박관념

잠자리에 누웠는데 잠이 오지 않으면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이 불안은 중추신경을 흥분시켜 잠을 쫓아 버립니다. 쉬운 일은 아 니지만 ‘내일 좀 피곤하겠지 뭐’ 정도로 가볍게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 5. 빛

잠이 오지 않아 텔레비전을 켜 놓거나 작업상 밝을 때 수면을 취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몸은 오히려 잠을 깨우는 노력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방을 밝혀럼 어렵게 해 몸에서 멜 라토닌이 나오게 하세요.



### 해야 할 다섯 가지

#### 1. 일정한 기상시간

잠 드는 시간을 의지로 조정하는 것은 어렵지만 잠이 깨는 시 간은 의지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늦게 잠자리에 들었더라도 규 칙적인 시간에 일어나면 흐트러진 수면주기와 생체리듬을 회복 할 수 있습니다.

#### 2. 적당한 운동

따뜻한 별을 쬔며 하는 운동은 여러 가지 각성 호르몬을 통해 낮 생활을 활동적으로 하게 도와줍니다. 활동적인 낮 생활은 밤 동안의 수면 욕구를 상승시켜 잠을 잘 자게 합니다. 단 격렬하게 운동하거나 늦은 밤에 운동을 하면 오히려 중추 신경을 흥분시키므로 잠들기 5~6시간 전에 운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 3. 미지근한 물로 샤워하기

체온이 적당히 내려가야 잠이 잘 오기 때문에 찬물이나 뜨거운 물보다 미지근한 물로 샤워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반신욕이 나 족욕의 경우에는 보통 뜨거운 물로 하는 경우가 많아 잠자 리에 들기 2~3시간 전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 4. 따뜻한 우유 마시기

우유에는 멜라토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잠이 안 온다고 술 드 시지 마시고 따뜻하게 데운 우유 한잔 드시고 잠을 청해보세요.

#### 5. 이완 요법

잠자리에 걱정거리가 따라 올 때는 이완요법을 해 보세요. 호흡 에 집중하며 온몸의 근육을 푸는 훈련을 하거나 마음을 편안하 게 하면 도움이 됩니다.

## 국비무료 직업훈련 교육생 모집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는 국비무료 직업훈련 교육생을 모집한다.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바란다.

개강	과정명	교육내용	교육기간	교육시간	모집인원
4.4	AUTO CAD	제도의 기본, 도면해독, 2,3차원 CAD, 금형설계 등	4월 4일~6월 28일 (3개월/240H)	월~금 9:30~13:30	25명 (초대졸 이상) (남성 수강가능)
4.4	품질관리 담당자 양성과정	품질경영개론, 품질경영공학, 품질경영시스템, 품질경영실무 등 <자격증 취득과정>	4월 4일~5월 17일 (2개월/120H)	월~금 14:00~18:00	20명
4.11	회계사무원 양성과정	전산회계 1급 및 OA(한글, 엑셀, 파워포인트) 교육 <자격증 취득과정>	4월 11일~6월 24일 (3개월/240H)	월~금 9:30~13:30	25명
4.11	무역실무자 양성과정	물류관리, 선하증권, 신용장, 복합운송, 무역영어 등	4월 11일~6월 24일 (2개월/210H)	월 ~금 9:30~13:30	25명 (초대졸 이상)

- 교육대상 : 취업의사가 확고한 경력단절 미취업 구직자
- 제출서류 : 등본, 사진 2장, 농협 통장사본, 최종학력증명서(해당과정)
- 훈련특전 : 교통비 지급  
(출석률 80% 이상 시 1일 2천500원 지급), 100% 취업알선
- 신청방법 : 제출서류 구비 후 선착순 접수  
(필요 시 면접을 통해 훈련생 선발)
- 문 의 : 469-1251

## 문제행동아동 걱정마세요

한신플러스케어 인천센터는 지자체와 공동으로 문제행동아동 조기개입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바우처 아동을 모집한다. 이 사업은 심리·정서적 부적응을 보이는 아동을 위한 심리치료 사업이다.

- 대 상 : 만 18세 미만 영유아·아동 청소년
- 세부대상 :
  - 산만하다는 말을 자주 듣는 아동(ADHD)
  - 유치원에 가기 싫어하고 또래와 어울리지 못하는 아동
  - 학교공부를 어려워하는 아동
  - 언어발달이 느린 아동 등
- 가구특성 :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00%
- 우선순위 : ① 기초생활수급권자  
② 차상위계층  
③ 저소득 우선
- 서비스 내용 : 놀이, 모래놀이, 미술, 언어, 인지치료, 부모상담 등
- 서비스 제공 횟수 : 월 4회
- 서비스 기간 : 4월~2012년 3월(12개월)
- 자부담 비용 : 수급권자 1만6천원 일반 3만2천원
- 홈페이지 : www.pluscare.or.kr
- 문 의 : 1688-3551

## 인천종합터미널 무인자동화 운영

인천종합터미널은 전국 최초로 올 1월 17일부터 시외버스 홈티켓서비스와 스마트폰 예약시스템의 실시로 시민들의 터미널 이용편의를 돕고자, 무인자동화 발권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홈티켓서비스란 인터넷이 연결된 컴퓨터와 프린트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나 버스승차권을 바로 발권해서 승차할 수 있다. 예약 및 발권은 출발시각 14일 전부터 2시간 전까지 가능하며 인천교통정보포털 '인티스'(www.intis.or.kr)에서 하면 된다. 또한 시외버스의 경우 스마트폰으로도 예약 할 수 있으며 앱마켓이나 앱스토어에서 '인천터미널' 어플을 다운받아 사용하면 된다. 문의 430-7114, 홈페이지 www.ictr.or.kr



## 어려울수록 더 가치있는 나눔 - 적십자회비

적십자회비는 재난을 당하거나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에 소중하게 사용하고 있다. 어려운 이웃에게 희망을 전할 수 있도록 적십자 회비모금에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 **납부권장금액**
  - 세대주 : 7천원, 8천원, 1만원, 2만원(강화/웅진 6천원)
  - 개인사업자 : 3~10만원(업종별 차등고지)
  - 영리법인 : 5~70만원(균등할 주민세 기준)
  - 비영리법인(종교, 학교 등 단체) : 3~10만원
- **납부방법**
  - 금융기관 이용 : 지로창구, 무인공과금수납기 및 자동입출금기(CD/ATM)
  - 입금전용지정계좌로 송금 : '입금전용지정계좌'로 텔레뱅킹이나 인터넷뱅킹
  - 편의점 이용 : 웨미리마트, GS25,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바이더웨이
  - 인터넷 이용 : 금융결제원 지로사이트(www.giro.or.kr), 적십자 홈페이지(www.redcross.or.kr)-신용카드, 휴대폰결제, 온라인 계좌이체
- 문의 : 810-1316~8
- **적십자회비 세제혜택**
  - 개인 및 개인사업자 : 소득세법 제34조에 의한 법정기부금으로 전액(100%) 소득공제 받을 수 있음
  - 법 인 : 법인세법 제24조에 의한 지정기부금으로 연간 소득금액의 5% 범위 내에서 전액 손금산입이 가능함 (사업자등록번호: 203-82-00639 대한적십자사)

## 직장인 근로자수강지원금 환급과정 개최

홍익직업능력개발원은 직장인 근로자수강지원금 환급과정 참여자를 모집한다. 과정은 기능사와 산업기사로 이론과 실기를 배우고 교육기간은 4월 7일부터 8월 1일까지다. 수강료는 120만원으로 출석률이 80% 이상 넘으면 수강료의 80% 이상을 환급해 준다. 지원대상자는 능력개발카드 소지자 혹은 이직 예정인자, 40세 이상인자, 500인 미만 제조업에 종사하는 자, 단시간 근로자,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하인자, 파견근로자, 일용근로자, 4인 이상 영세자영업자 등이다. 문의 : 761-0069

## 중장년층 여성 위한 '행복한 수다'

송의종합사회복지관은 3월 중장년층 여성(40~59세)의 신체적, 심리적 요인에 의한 우울감을 예방하기 위해 지역재능나눔 활동가 양성사업 '행복한 수다'를 진행한다. 복지관에서는 이들 중년여성들에게 웃음치료 및 긍정적 삶을 위한 교육, 스트레스 관리법 등의 특강을 진행한다. 또 리본, 홈패션, 가구리폼 등 다양한 강좌개설 및 단합대회를 통해 생활의 긍정적 의미를 찾도록 도움을 준다. 참여를 희망하는 지역주민은 복지관에 전화하거나 방문하면 된다.

- 전화 : 888-6222 / 팩스: 888-6224
- 홈페이지: secwc.or.kr

## '부모와 자녀의 유쾌한 소통'을 꿈꾸다!

연수문화원에서는 새학기를 맞아 부모와 자녀간의 원활한 관계형성 및 소통을 위한 다양한 강좌를 개설해 진행한다. 연극을 통해서 나 자신을 표현하는 방법, 부모와 자녀의 유쾌하고 통쾌한 소통법, 독서이력제 지도를 위한 독서 포트폴리오 작성법, 우리가 꼭 알아야하는 한국사 등 다양한 부모강의를 준비했다. 2011년 연수문화원 불학기 수강신청 기간은 2월 15일(추가접수) 10시부터 선착순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홈페이지를 통해 강좌 확인 및 신청할 수 있다.

- 연수문화원 홈페이지 WWW.YEONSU.OR.KR
- 연수문화포털 WWW.CALL.YEONSU.GO.KR
- 문의 : 821-6229



## IFEZ 투어 프로그램 참가자 모집

인천경제청은 대한민국의 신성장 동력을 창출할 첨단 국제도시 건설현장인 IFEZ 주요시설에 대한 투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관심 있는 시민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

- 투어운영 : 1월~12월(둘째, 넷째 수요일)  
※ 신청단체의 희망요일 최대한 반영
- 대 상 : 인천시민
- 투어시간 : 투어 지정일 13:00~17:00(4시간 범위 내)  
※ 투어코스 및 시간은 별도 협의에 의해서 조정 가능
- 신청접수
  - 접수기간 : 연중
  - 신청방법 : 방문, 전화, FAX 신청
  - 접 수 처 : 전화 453-7076 / 팩스 453-7089  
E-mail : alth71@korea.kr

구 분	소요시간	투어 대상지
A 코스	2시간	컴팩스마트시티(IFEZ 임시 홍보관), 트라이볼, NEATT, 수상택시
B 코스	3시간	컴팩스마트시티(IFEZ 임시 홍보관), 트라이볼, NEATT, 수상택시, 투모로우시티, 컨벤션센터, 글로벌대학 캠퍼스, 사이언스빌리지 확대단지
C 코스	4시간	컴팩스마트시티(IFEZ 임시 홍보관), 트라이볼, NEATT, 수상택시, 투모로우시티, 컨벤션센터, 글로벌대학 캠퍼스, 사이언스빌리지 확대단지, 인천대교기념관
D 코스	4시간	컴팩스마트시티(IFEZ 임시 홍보관), 트라이볼, NEATT, 투모로우시티, 생활폐기물자동집하시설, 송도하수처리재이용시설, 공원 등



미추홀도서관 문화·교양강좌

미추홀도서관은 새봄이 시작되는 3월 다양한 행사를 마련했다. 문화·교양강좌에 관심있는 시민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

● 다문화가정 여성을 위한 컴퓨터교실

- 기 간 : 2월 9일(수)~4월 27일(수) / 매주 월·수
- 장 소 : 미추홀도서관 컴퓨터교육실(3층)
- 대 상 : 결혼이민여성 및 이주자
- 강 사 : KT인천 IT서포터즈
- 문 의 : 440-6664

● 인천 골목길 풍경展

- 기 간 : 3월 15일(화)~4월 10일(일)
- 작품구성 : 일러스트작품 20~30점
- 문 의 : 440-6643

● 친환경 체험행사

- 일 시 : 3월 26일(토) 14:00~16:00
- 장 소 : 미추홀도서관 세미나실1(3층)
- 강 사 : 인천도시농업네트워크
- 대 상 : 성인 30명
- 문 의 : 440-6662, 6665

**OBS** 채널안내 670-5500 뉴스제보 670-5555

OBS경인 TV는 대한민국 수도권의 새로운 지상파 방송사입니다.

아날로그 CH4, CH 21 / 디지털(HD) CH8

홈페이지 [www.obs.co.kr](http://www.obs.co.kr) , 스마트폰(iPhone) OBS 무료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실시간 시청할 수 있습니다.

구 분	지역(인천)	아날로그	디지털
케이블 TV	남동구, 서구, 옹진구, 동구, 강화, 중구	3번	8번·13번
	계양구, 부평구	15번	17번
	남구, 연수구	17번	17번
스카이라이프HD	HD가입자에 한해 시청 가능		4번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오정동 202-7 670-5000 [www.obs.co.kr](http://www.obs.co.kr)

인천시민 인문학강좌 수강생 모집

인천광역시립박물관과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가 인천지역의 문화인프라를 구축하고 인천시민의 인문학적 소양 및 가치를 증진코자 <인천시민 인문학강좌>의 2011년도 상반기과정을 오는 3월 15일 개설한다. 강좌는 20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수강료는 전액 무료. 접수는 2월 18일(금)부터 3월 13일(일)까지이며 박물관 홈페이지를 통해 14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인문학강좌는 상·하반기과정으로 나뉘지며, 2011년 상반기과정은 ‘21세기의 눈으로 보는 한국학’이라는 주제로 강의가 진행된다.

문의 : 440-6734

홀로사는 어르신들의 만남 ‘합독’

우리시는 홀로사는 어르신들의 만남의 장을 여는 ‘합독’사업을 실시한다. 관심있는 어르신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

- 일 시 : 3월 30일(수), 11:00~16:00
- 장 소 : 인천하버파크호텔
- 대 상 : 만60세 이상 배우자가 없는 어르신(사실혼자 제외) 선착순 100명(남 50명, 여 50명)
- 신청 및 접수 : 인천노인종합문화회관 인천시·군·구 노인복지관 9개소, 노인문화센터 8개소
- 행사내용 : 특별공연, 레크리에이션, 로테이션극대화, 커플매칭 등
- 문 의 : 457-5300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서포터즈 모집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는 서포터즈를 모집한다. 관심있는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

- 모집기간 : 1월~ 2014년 8월
- 모집대상 : 회원국에 관심과 연고가 있는 내·외국인 (일반시민, 기업인, 다문화 가족, 학생, 공무원, 외국인)
- 신청방법 : 3월부터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홈페이지 ([www.incheon2014ag.org](http://www.incheon2014ag.org))를 통해 온라인 접수
- 인센티브 : 활동인증서 수여, 문화 및 언어교육 제공, 우수서포터즈 포상 등
- 문 의 일반시민 : 440-2426(시 자치행정과) 다문화가정 및 외국인 : 451-1731, 2(인천국제교류센터) 학생 : 440-2165(시 교육지원담당관실)

○ 강좌개요

강좌명	2011년도 <인천시민 인문학강좌> 상반기 과정
기 간	3월 15일~6월 28일(8강, 격주 화요일) 14:00~16:00
주 제	21세기의 눈으로 보는 한국학
장 소	인천광역시립박물관 1층 석남홀
대 상	일반시민 140명(무료강좌)
방 법	박물관 홈페이지( <a href="http://museum.incheon.go.kr">museum.incheon.go.kr</a> ) 선착순 접수
기 간	2월 18일(금)~3월 13일(일)
문 의	440-6734

4인 이하 사업장 퇴직연금 서비스

근로복지공단은 작년 12월 1일부터 4인 이하 사업장 퇴직연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퇴직급여제도가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되었다 퇴직급여제도가 2010년 12월 1일부터 근로자 1인 이상을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적용됨에 따라,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는 누구나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 퇴직연금은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큰 힘이 된다 퇴직연금은 퇴직급여제도의 하나로 퇴직금을 사외 금융기관 등에 안전하게 적립하여 은퇴 시에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선진국형 퇴직급여제도다.

사업주 측면	근로자 측면
• 부담금 전액을 손비처리로 세금 절감 • 퇴직금 일시 지급을 위한 자금조달 어려움 예방 • 근로자의 장기근속 유도 • 임금채권부담금 최대 50% 감면	• 퇴직급여 수급권 100% 보장 • 안정적 수익을 통한 퇴직소득 극대화 • 퇴직일시금 또는 연금 수령 가능 • 추가기여 및 소득공제를 통한 절세

- 근로복지공단이 4인 이하 사업장 퇴직연금 서비스를 제공한다 근로복지공단은 안정성과 공공성을 바탕으로 업계 최저의 수수료와 높은 이율보장 상품, 간편한 도입절차 등 4인 이하 중소기업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 4인 이하 퇴직연금 상담 및 문의  
• 근로복지공단 경인지역본부 복지부 451-9703, 451-9798  
•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1588-0075 [www.kcomwel.or.kr](http://www.kcomwel.or.kr)

인천종합일자리지원센터 단기교육 무료 참가

인천종합일자리지원센터는 구직자의 취업을 돕기 위해 집단상담 및 단기직업 교육 무료참가자를 모집하고 있으니 많은 참여를 바란다.

- 청년 집단상담  
• 교육기간 : 3월 21일(월)~3월 25일(금) 오후 1시~오후 5시  
• 신청기간 : 3월 7일~3월 17일(목) 13:00까지  
• 장 소 : 인천종합일자리지원센터 1층 교육장  
• 대 상 : 35세 미만 인천시민  
• 교육내용 : 자기탐색 및 효과적인 취업전략, 셀프 리더십 등  
• 문 의 : 458-7485

- 전문가사도우미 양성 무료교육  
• 교육기간 : 3월 14일(수)~3월 18일(금) 09:00~12:00  
• 신청기간 : 3월 10일(목) 18:00까지  
• 장 소 : 인천종합일자리지원센터 1층 교육장  
• 교육인원 : 25명(접수 후 선발)  
• 교육내용 : 가사도우미 실무 및 소양교육  
• 문 의 : 458-7489~90

월디어린이장난감도서관 ‘Toy Story’

월디어린이장난감도서관에서는 부모들의 자녀 양육 부담을 줄이고 아동들의 발달단계에 맞는 놀이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장난감대여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관심 있는 아동과 부모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

- 일 시 : 매주 월~금요일(오전 10시~오후 6시) 토요일(오전 10시~오후1시)
- 장 소 : 율목동 Toy Study 지하 1층 월디어린이장난감도서관
- 대 상 : 인천 거주 영·유아 세대
- 이용료 : 연회비 2만원 (1가족당 도서 4권, 장난감 2점 대여 가능)
- 이용기간 : 1회 6박 7일(전화, 방문으로 일주일 연기 가능)
- 문 의 : 766-0198

부평기적의도서관 개관 5주년 기념행사

부평기적의도서관은 개관 5주년을 맞아 ‘다섯 가지 색과 감각(시각, 청각, 촉각, 후각, 미각)으로 만나는 도서관’을 주제로 한 공연, 전시, 체험 등 다양한 문화경험의 장을 펼친다.

- 일 시 : 3월 12일(토) 15:00~17:30
- 장 소 : 부평기적의도서관 어울림, 책나라
- 대 상 : 도서관 이용자 누구나
- 참가비 : 무료
- 행사내용 : 개관 5주년 기념식 외 ‘오색오감 도서관’을 주제로 한 공연, 전시, 체험 및 다양한 부대행사
- 문의 : 505-0612

청소년 국제교류 대한민국 청소년대표단 모집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의 글로벌 역량 강화와 국가간 상호이해 및 우호협력 증진을 위해 매년 ‘국가간 청소년교류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선발된 청소년들은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 대표단 자격으로 상대국 청소년들과의 교류활동, 문화체험, 홈스테이, 유적지 및 산업시설 탐방 등의 활동을 펼치게 된다.

- 사 업 명 : 국가간 청소년교류 한국대표단 파견
- 모집인원 : 368명(국가간 교류 285명, 한중특별교류 83명) ※ 10대 청소년 40%, 기초수급 청소년 20% 이상 선발
- 참가대상 : 만 16세~24세 청소년 (통역요원은 만 20세 ~ 29세)
- 모집시기 : 2월 17일(목)~3월 9일(수)
- 참가방법 : 청소년국제교류네트워크([www.iye.go.kr](http://www.iye.go.kr))에 온라인 접수
- 문 의 : 440-2844

틀린그림찾기  
어디가 다를까?

## 인천을 알아가는 재미가 가득!

사진은 송도국제도시 미추홀공원입니다.  
뒤에 보이는 높다란 빌딩은 동북아트레이드타워입니다.  
틀린 부분을 찾아 맞춰보세요. 모두 다섯 곳입니다.  
시민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월호 '틀린그림 찾기' 정답을 공개합니다. 그리고 정답자 가운데 열 분을 추첨하여 알립니다.



조혜근   서구 신현동	김지수   중구 을목동
전옥경   의정부시 가평동	김은정   계양구 효성1동
임유찬   동구 화수1동	박기선   남구 관교동
권나래   서구 검암동	주영호   남구 학익2동
김숙연   중구 향동	왕숙분   남구 학익2동



독자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굿모닝인천>은 시민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잡지입니다. 애정어린 관심 부탁드립니다.

- 인천 틀린그림 찾기에 응모하세요. 인천을 주제로 틀린그림 찾기 문제를 만들어 주는 것도 환영합니다.(단, 정답은 우편으로만 받습니다.)
- 사진도 공모합니다. 주제는 자유입니다. 추억이 담긴 사진과 함께 간단한 사연을 적어 보내주세요.



독자엽서 당첨자 ※ 독자엽서에 참여한 여섯 분을 선정합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윤월선   계양구 작전동	김순만   의정부시 신곡1동	배선옥   연수구 옥련1동
박성호   연수구 동춘2동	함준영   계양구 계산3동	차유리   연수구 연수동



김치 찰작



## 대한독립만세~

3월이면 언제나 대한독립만세 소리가 들리는 듯 합니다. 언젠가 인천 도호부청사에 갔는데, 흰저고리에 점정치마를 입는 체험이 있어서 딸과 딸의 친구에게 입히고 만세삼창을 시켰습니다. 3월의 함성소리가 들리지 않나요?  
\_ 강미화 남구 주안4동

장원



## 실례합니다

20층 사무실에서 회의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창문에 '스파이더맨'이 나타나 깜짝 놀랐습니다. 유리창 청소 중이었습니. 바야흐로 봄입니다. 마음의 창도 닦아야겠습니다.  
\_ 연수구 옥련동 한지윤

## 폼 나는 우리 아들

만화박물관으로 아이들과 나들이를 갔습니다. 아들 녀석이 만화 속 주인공과 누가 맛있는지 겨루고 있네요. 어때요? 폼 나지요?  
\_ 김선용 남동구 도림동



## 인간 탐 쌓기 놀이~

할머니댁에 모인 아이들이 모여 탐 쌓기를 하고 놀입니다. 친척이지만 친형제 못지않게 가까운 아이들입니다. 참 사랑스럽지요? \_ 노현우 연수구 동춘동



## 보내실 곳

우편번호 405-750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인천광역시 대변인실 <굿모닝인천> 독자마당 담당자 앞(문의 ☎ 440-8305)  
홈페이지(goodmorning.incheon.go.kr)와 시 트위터(twitter.com/smartincheon, 영문사이트), (koreantweeters.com/smartincheon, 한글사이트)로도 받습니다. 마감은 매월 20일까지입니다. 응모하는 분의 이름과 주소, 연락처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접수됩니다. 채택되신 분께는 작은 선물(문화상품권 1만원권 1장, 장원과 쿼즈몬 제 작성은 각 3장)을 드립니다.

## 즐거운 병원 놀이

아이는 선생님 아빠는 환자. "아빠 어디가 아파요? 제가 아프지 않게 주사 놓을게요. 아빠 엉덩이에. 호호." 다정한 한때를 보내는 부녀지간입니다. \_ 최홍성 계양구 작전2동

## “그대는 홍보대사입니다”

스마트폰 사용자가 500만명이 넘어서는 등 정보가 빛의 속도처럼 삼시간에 퍼지고 있습니다. 매일 홍수처럼 쏟아지는 정보들로 혼란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알려지지 않은 정보도 많습니다. (재)인천국제교류센터가 그 가운데 하나입니다.

센터는 세계 여러 도시와 국제교류를 폭넓게 추진해 인천의 발전에 기여하고 친선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지난 2005년 설립한 인천시 산하기관입니다. 센터에서 진행하는 사업 대부분이 시민과 함께 만들고 또 시민에게 혜택을 주는 것으로 아직 모르는 분들이 많아 이렇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센터는 인천의 미래를 이끌어가는 청소년들이 시야를 넓힐 수 있도록 청소년 홈스테이, 캠프, 청년봉사단활동 등 교류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대학생과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청년해외인턴십 프로그램을 운영해 인천의 젊은 이들이 우리나라를 넘어 글로벌 무대에서 활동하는 기회를 넓히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이 영어·중국어·일본어·아랍어 스터디클럽을 구성해 해당언어를 학습할 수 있도록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국내외 교류 행사를 열어 외국어뿐만 아니라 문화적으로도 외국을 이해하는 기회를 마련하고 있으며, 현재 50여 클럽 월 900명의 시민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어 주말에는 토크하우스를 개방해 원하는 사람들이 모여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접하기 어려운 중동, 아프리카 지역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다문화 체험관을 운영하며 각 지역의 특색 있는 생활용품·문화·예술품을 전시하고 시민을 대상으로 견학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4년, 인천에서 아시아경기대회가 열립니다. 센터는 인천시민이 주인의식을 갖고 민간 홍보대사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서포터즈’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서포터즈는 45개 참가국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그 나라의 문화, 역사, 언어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활발히 교류해 해당 국가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교류와 소통을 이어가게 됩니다. 교육 우수 수료자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홈페이지(www.icice.or.kr)를 방문하거나 전화(451-1771~3)로 문의하면 국제교류센터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센터는 앞으로도 사업을 적극적으로 진행하여 더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글 김 광  
(재)인천국제교류센터 전략조정실장

### 내 가슴에 새긴 한 구절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어느 피로회복제 광고를 볼 때면 내 마음은 따뜻해진다. 그 광고에 나오는 사람들은 이렇다. 청소부 아저씨의 버거운 손수레를 밀어주기도 하고, 졸고 있는 빌딩 경비 아저씨에게 음료수를 건네기도 한다. 또 월급봉투는 알아도 노점상 할머니의 야채를 모두 사고는 신나는 표정으로 집으로 향하고, 임산부가 엘리베이터에 탈 때까지 한참을 기다릴 줄 안다. 사람 사이에서 생기는 피로를 풀어 주는 것은 결국 사랑이고, 우리에게 더 큰 행복을 꿈꾸게 하는 것 역시 사람밖에 없다. 바쁜 일상 속에서 잊고 사는 가족, 이웃, 친구들을 떠올리며, 그들과 함께 행복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되돌아봐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어느 책 제목에서 따온 ‘더디고 느릴 지라도,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내 가슴에 품은 한 구절이다.



### 상상의 나라로 들어가는 문

육중한 콘크리트 기둥에 매달린 시커먼 철제 교문. 세월이 흘러도 교문은 폐쇄적이며 권위적인 ‘문턱’으로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개성 없는 교문의 모습만큼이나 우리 교육은 획일적이며 천편일률적입니다.

몰개성(沒個性)의 상징인 교문은 가라. 이제 교문은 상상의 나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인천문화재단은 지역예술가와 함께 교문을 아름답게 만들고 있습니다. 3월, 햇병아리들이 처음 교문에 들어섭니다. 학교에서 상상의 나라에 대한 꿈을 마음껏 펼칠길 우리 모두 기대합니다.

글·사진 유동현 본지편집장

